無 名 大 父

,Nameless Gangster

ver 8.0 0124

각본/감독 윤 종빈

1. 프롤로그

암전 위로 자막이 떠오른다.
80년대 중후반, 한국의 폭력조직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대중들의 민주화 열기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당시 조직폭력배 관련 사진, TV 자료화면 등이 나오며 계속해서 자막.
전국 294개 파, 6100 여명에 달하는 조직폭력 세력들의 비
약적인 성장은 결국 심각한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1990년 10월 13일,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하
게 된다.
자막 사라지면 장엄한 음악 흐르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2. 실내외. 도로 / 차 안. 밤

옅은 빗줄기 사이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스쳐 지나간다.
경광등을 울리며 산길도로를 내려가고 있는 검찰청 차량 다섯 대.
자막 '1990년 9월, 부산'
- 차 안
차량 뒷좌석, 검찰청 팀원1,2 사이에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 익현
(44)... 가무잡잡한 피부에 짙은 주름살, 갈색 우드 프레임 안경을 낀 모습이
전형적인 중년 아저씨의 모습이다.
익현
어이, 형사 양반... 당신 이 일 한지 얼마나 됐어??
옆에 앉아 있던 팀원1, 고개를 돌린다.
검찰청 청사가 76년도에 옮깄나?? 인자 새로 하나 지을 때
됐는데... (대답이 없자 피식 웃으며) 다들 옷 벗을 준비 하
고 있으이소... 당신들은 절대 내 못 잡아넣어... 절대로...

어두운 터널 안으로 진입하는 검찰청 차량들.
타이틀 無名大父, Nameless Gangster

3. 실외. 부산 지방 검찰청 청사 / 앞. 밤

검찰청 차량이 청사 앞으로 도착하자 죽치고 있던 취재진이 몰려든다.
검찰청 팀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차에서 내리는 익현.
팡팡~ 여기저기서 사진기 플래시가 터져대고 기자들이 서로 앞 다투어 익현
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달라붙는다.
기자들 틈을 뚫고 나와 청사 안으로 익현을 끌고 가는 검찰청 팀원들.

4. TV 뉴스화면 몽타주

탑 크레딧 이어지는 가운데 TV에 익현의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앵커
부산 폭력조직의 대부 최익현씨가 오늘 20일 검찰에 검거
되었습니다... 호텔, 건설업체 대표 등을 위협해서 수십 억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XXX 기자가 보도합
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익현 - #3 장면
기자1(V.O)
오늘 오후 8시 부산 폭력조직의 대부 44살 최익현씨가 검
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차림에 최씨는 취
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 기사식당, 터미널, 목욕탕, 이발소, 전파상 앞 등 -
시민들이 TV에서 흘러나오는 익현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있다.
- TV 화면 -
검찰청 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익현.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85년부터 90년까지 10여 차
례에 걸쳐 부산의 모 호텔업자 허씨와 건설업체 대표 양
씨등을 위협해 5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말을 잘
- 3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동원해 납치,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쿠자조직과 사카스키 의식을 하고 있는 부산 조직원들.
부산 폭력조직의 실질적 두목으로 알려진 최 씨는 1988년
11월 자신의 조직원 20명을 데리고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와 의형제를 맺는 '사카스키'의식을
거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복도. 밤

물고문을 당해 기절한 피의자1을 부축하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 검찰청
직원들, 복도 한쪽에는 얼굴이 심하게 상한 피의자2가 무릎 꿇은 상태로 양손
을 들고 있다. 팀원1,2,3에게 이끌려오는 익현, 피의자들을 힐끔 쳐다본다.

6.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강력부 취조실. 밤

거칠게 반항하는 익현을 취조실로 데리고 들어오는 팀원1,2,3.
한 쪽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허 사장(52), 익현을 보고는,
허 사장
어... 저 왔네... 깡패새끼... 형사님... 저놈이 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익현 쪽으로 다가오는 허 사장.
야이 깡패새끼야... 니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무사 할 줄
알았나??!!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삿대질하며) 이런
깡패새끼는...
익현
(때리려하며) 돌았나... 이 양반이...
허 사장
허... 이봐라, 또 사람 치겠네... 치라, 치라... 치봐라, 깡패
새끼야... 어?!! 또 사람시키가 함 뚜까패봐라...
익현
(인상쓰며) 허 사장님... 말 함부로 하지마이소... 예??!!
- 4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팀원1
(익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어이... 당신 요가 어딘지 아

나??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빼고는 다 가능한 곳이다
요가... (의자 하나를 던지며) 얌전히 앉아 있어... (허 사장
에게) 허삼식씨... 저 쪽으로 가이소...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익현, 마치 자신의 안방이라는 듯 태연하게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는다. 그때, 수건을 목에 두르고 취조실로 들어오는 한 남
자, 범석(36).
범석
(팀원1에게) 이 새끼야?
팀원1
예... (익현에게) 인사해라... 검사님이시다...
고개만 까딱 하며 대충 인사하는 익현.
범석
(칫솔로 익현의 머리를 밀며) 인상 좆같네...
익현
(칫솔을 피하며) 아니... 검사님... 지금 영장도 없이 뭐하
는 짓입니까?? 예?? 아니 용건이 있으면...
퍽~ 아무런 말없이 익현의 머리를 서류철로 내려치는 범석, 틈을 주지 않고
사정없이 익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다.
범석
(익현을 노려보며) 일어나...
기분 나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익현.
좆만한 깡패새끼가... 죽을라고... 차렷...
익현이 차렷을 하지 않자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범석.
어쭈??!! 차렷... 열중쉬어... 차렷... 열중쉬어...
익현이 아무 동작도 하지 않자 피식 웃는 범석, 익현에게 다가간다.

그런 범석을 뜯어 말리는 검찰청 팀원1.
팀원1
검사님... 와이라십니까... 이라면 검사님 몸만 상합니다...
범석이 숨을 고르며 한쪽으로 물러선다.
범석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깐 그 때까지 알아서들 길들여 놔...
(팀원들에게 고함치며) 뭐 했어 지금까지??!! 씨발...
쾅~ 범석이 문을 닫고 나가자 인상을 찌푸리는 팀원1, 취조실 한 쪽 구석에
있는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한다. 콸콸~ 욕조에 물이 차오르자 긴장되는 듯
침을 한 번 꿀꺽 삼키는 익현.
팀원1
마, 좋게 좋게 가자... 똑바로 얘기해봐... 니 뭐 잘 못 했노??

7. 실내. 호텔 / 객실. 낮

여기저기 속옷, 먹다 남은 음식 등이 널브러져 있는 객실 내부, 어디선가 중년
남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TV에서는 강수지가 '보라 빛 향기'를 열
창하고 있다.
자막 '1달 전, 1990년 8월, 부산'
띵동~ 벨소리가 울리자 먹던 자장면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조직원
1, 욕실 안에서는 조직원2,3이 팬티만 입은 허 사장에게 물고문을 하고 있
다. 조직원1이 문을 열어주자 조직원 4,5와 함께 객실로 들어오는 판호(39),
금목걸이에 롤렉스시계, 언뜻언뜻 보이는 문신 등 영락없이 조폭이다.
판호
... 어데 있노?
조직원1
(자장면을 우물거리며) 예... 저쪽 욕실에...

거실을 지나 욕실로 들어가는 판호,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허 사장을 말 없이 바라본다.
조직원2
- 6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머리를 물 속에서 들어 올리며) 오셨습니까 행님...
거칠게 숨을 헐떡거리는 허 사장을 다시 물속에 집어넣는 조직원2.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허 사장, 살기 위해 팔다리를 허우적거린다.
판호
됐다 고마 데꼬 나온나...
허 사장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나오는 조직원2,3.
허 사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판호에게) ... 김 사장...
짝~ 다짜고짜 허 사장의 뺨을 때리는 판호, 흥분한 듯 거친 숨을 내쉬며 수차례 허 사장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긴다.
판호
(흥분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기 좋다 좋다 카니깐...
양손을 얼굴에 감싸며 방어하는 허 사장, 하지만 판호는 아랑곳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허 사장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는다. 으으~ 짐승 같은 비명을 내뱉으며 울먹이는 허 사장, 순간 으아악~ 있는 힘을 다해 판호를 밀치더니 쏜살같이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간다.

8. 실내. 호텔 / 객실 복도. 낮

팬티차림의 허 사장이 객실에서 뛰어나와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간다.
황급히 달려 나와 허 사장을 뒤쫓는 판호와 그의 부하들.

9. 실외. 공사현장. 낮

대형트럭과 포크레인 등이 오가는 공사현장,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와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멈춰 선다. 미리 대기하고 있는 부하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는 익현, 10여명의 부하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10. 실내. 컨테이너 사무실 / 사장실. 낮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허 사장이 익현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7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허 사장
아니... 막말로 관광호텔을 객실장사 할라고 짓나? 빠칭코 하나 낼라고 그라는긴데... 지분을 반이나 가꼬 가뿌면 나는 뭐가 남노... 아 모르겠다 다 필요 없고, 일단 경찰에 신고할란다...
익현
그기 그란다고 해결 되겠습니까?? (혼잣말조로) 어차피 빠칭코 할라면 그런 친구들이 뒤 봐주는 게 필요 하긴 필요한데...
허 사장
내가 그걸 몰라서 이라나? 아무리 그래도 동업자를 이래 뚜디패는 놈들이 세상 천지에 어딨노... 보호비 조로 한 달에 천씩만 내도 뒤 봐줄 놈들 쎄고 쐈다... 부산 시내에 깡패가 그 인간 하나 뿐인 것도 아이고... (한숨 쉬며) 최 사장 얘기만 믿고 만난 내가 빙신이지...
익현
(허 사장의 눈치를 보며) 아 새끼들 사람 중간에서 난처하게... 와 그랬지??
의심어린 눈으로 익현을 노려보는 허 사장.

11.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복도. 새벽.

신문배달원이 사무실 문 앞에 신문을 던져 놓고 간다. 문 앞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각 언론사들의 조간신문, 1면 헤드에는 모두 '부산 폭력조직의 대부, 최익현 검거' 라는 글씨와 함께 익현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다.
자막 '1990년 9월, 부산'

12.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구치감. 새벽

고문을 당한 듯 얼굴이 몹시 상한 익현이 양복 상의를 벤 채 구치감에 누워 있다 끼이익~ 문 열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신문 하나를 들고 구치감으로 들어오는 범석, 철창 사이로 익현에게 신문을 던져준다. 신문 1면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는 놀라는 익현.
범석
어이... 깡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예, 아니요... 로만
대답한다... 알겠나??

익현
(이미 기가 죽어) ... 예...
범석
한글 쓸 줄 알지?
익현
예...
범석
(펜과 종이 100장을 꺼내며)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허 사장
감금, 폭행 지시를 포함해 당신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나
쁜 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모두 다 적는다... 언제
왜 깡패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깡패두목이 되었는지...
익현
(정색하며) 예?? 깡패두목이요??
범석
특히... 그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도... 아주 구체적
으로... 누가 봐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보
기 좋게 이쁜 글씨체로 성실하게 서술한다... 알겠나?
익현
(정색하며) 검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깡
패 아닙니다... 제가 어딜 봐서 깡팹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범석
(무시하고는) 만약 내가 아는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약간이라도 거짓이 들어 있을 경우... 이후 상황
은 상상에 맡기겠다...
종이 백장과 볼펜 세 자루를 철창 안으로 던지고는 구치감을 나가는 범석.
익현
검사님... 아니, 영감님!!! 대체 뭘 쓰란 말입니까?? 예??!!

13. 실외. 부산항 제3부두. 낮

끝도 없이 이어진 항만 부두, 하역 작업 중인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덜컹~ 하는 쇳소리와 함께 배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집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트럭 위에 얹어 주는 대형 크레인.
자막 '8년 전, 1982년 3월, 부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부두를 내달리는 익현(36), 단정한 머리에 세관원 복장을 한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자전거를 한쪽에 세워 두고는

동료들이 모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다가가는 익현, 절단기를 동료(이하 장 주임)에게 건넨다.
밀수꾼1
(익현을 붙잡으며) 아니... 이라지 마시고...
익현
(정색하며) 어허... 장 주임님... 이거 빨리 열어보이소...
'철컥~' 절단기로 자물쇠를 뜨고는 컨테이너 박스를 여는 장 주임.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명태포' 라고 적힌 종이박스 수 십 여개가 놓여있다.
재빨리 박스 하나를 선택해 뜯어보는 익현, 하지만 박스 안에는 표기 그대로 명태포만이 가득 들어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익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박스 세 내개를 연이어 뜯더니 박스 깊이 손을 넣어 그 안을 휘젓기 시작한다. 뭔가를 발견한 듯 씩 한번 웃더니 이내 박스를 들어 바닥에 내다 부어버리는 익현. 우르르~ 명태포를 비롯한, 인삼, 홍삼, 녹용, 롤렉스시계, 금괴 등 각종 밀수품이 바닥에 쏟아진다. 당황해하는 밀수꾼1.
익현
완전히 대한민국 세관을 알로 보는구만...
홍삼, 녹용 등을 집어 드는 익현.
이기 다 뭡니까?? 명태 밥이요?? 참나 세상 좋아짓다 좋아짓다 하드만 요새는 명태가 홍삼을 먹는갑네... (밀수꾼1의 옷 덜미를 잡으며) 같이 좀 가입시다...
밀수꾼1
(버티며) 아니 저기... 저기... 사실은 제가 관리과 박 과장님... 집안사람입니다...
밀수꾼1의 얘기에 옷 덜미를 놓는 익현, 표정이 굳어진다.

* * * * *
장주임을 비롯한 동료들과 뭔가를 상의하는 익현, 밀수꾼1에게 다가온다.
익현
그... 제가 동료들 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알만큼 아는 사람이 이라면 됩니까??
밀수꾼1
아 그기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된 건데... 전달이 좀...
익현
(정색하며)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네... 무슨 얘기가 됐는데??!! 아니 관리과에서는 관리과 일을 하고... 감시과에서는 감시과 일을 하는 기지... 우리는 관리과가 아니라 감시괍니다, 감시과...
익현의 눈치를 살피는 밀수꾼1.
(한 숨 쉬며) 아니 집안 형님이 세관에서 근무하는데... 그리 저희 고충을 모르십니까?? 감시과 저 포함해서 저 세명이 답니다... 네 명이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들 다 조사한다꼬 얼마나 쎄가 빠지겠습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익현을 바라보는 밀수꾼1.
(웃으며) 아 나 참... 이 사람 말 귀 못 알아듣네... 아이씨 몇 살입니까??
밀수꾼1
예... 올해로 46입니다...
익현
아 그래요?? 저보다 한 참 많으시네... 보니깐 사장님 이런 일에는 초짜신 것 같은데... 우리도 사장님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 짓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호간의 예의는 지켜야지...
밀수꾼1을 쳐다보며 씩~ 웃는 익현.
* * * * *

검정색 비닐봉투에 롤렉스시계 18개와 금괴 4개를 챙기는 익현.
익현
내 진짜 동네 형님 같아 보이가 이번에 이래 넘어가는데...
담부턴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서로 조율합시다...
밀수꾼1
(꾸벅 인사하며) 예, 예... 고맙습니다...
밀수꾼1과 인사를 나누고는 땅바닥에 떨어진 홍삼하나를 더 챙기는 익현.

14. 실내. 부산 본부 세관 / 사무실. 낮

익현과 동료들이 비닐봉투를 들고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다 사무실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뭔가 싫어 어깨 너머로 사무실 안쪽을
쳐다보는 익현, 보면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무실 안을 샅샅이 뒤지
고 있다. 깜짝 놀라 발걸음을 돌리는 익현과 동료들.

15. 실내. 부산 본부 세관 / 화장실. 낮

급히 화장실로 들어오는 익현과 동료들, 화장실은 이미 다른 세관원들의 도
피처가 되어있다. 한쪽 칸막이로 들어가는 익현과 동료들, 화장실 천장을 들
어 올려 무언가를 빼내기 시작한다. 우르르~ 천장에서 현금 다발들을 비롯
한 각종 밀수품이 쏟아지자 급히 상하의 주머니에 구겨 넣는 익현과 동료들.
익현
(가져온 비닐봉투를 내려놓으며) 행님... 이거... 이것도 주
머니에 다 너뿌이소...
장 주임
내 지금 주머니에 자리가 없다... (두리번거리며) 아 씨발
어딨노?? 마누라 줄라고 모피 하나 챙기놨는데...
익현과 동료들 모두 상하의 주머니가 현금다발로 가득 차 있어 들어갈 자리
가 없다.
익현
(손목에 시계를 차며) 됐다... 나나가 그냥 찹시다...
재빨리 양 손목에 세 개씩 롤랙스 시계를 차더니 금괴를 허리춤에 하나씩 넣

는 익현과 일행들. 그때, 익현과 동료들에게 조 계장이 다가온다.
조 계장
마... 느그들 어디 있었노??!! 지금 좆됐다...
놀라 쳐다보는 익현과 일행들.
보따리 아주메 하나가 검찰에 꼬발라가 지금 난리다... 그
니깐 느그들도 사무실에 드가지 말고 바로 퇴근해라... 알
겠제??
어리둥절해하며 화장실을 나가는 익현과 동료들.

16. 실외. 극장 앞 거리. 낮

극장 앞에서 10여명의 대학생들이 반정부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학생1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을 즉각 타도
합시다... 미군축출, 군부독재 타도...
시위 중인 대학생들 앞으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익현, 그때, 어디선가
경찰들이 달려와 권봉으로 대학생들을 사정없이 후려치자 놀라 고개를 돌린
다. 잠깐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이내 발걸음을 돌려 식당 안으로 들어
가는 익현.

17. 실내. 식당. 낮

조 계장을 비롯한 장 주임, 동료1,2 가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져 있다.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익현.
조 계장
어, 그래... 잘 마무리 하고 왔나?? 일단 한 잔 해라...
조 계장이 맥주를 따라주자 쭉 원샷하는 익현.
최 주임... 위에서 나온 얘긴데... 아무래도 우리 감시과에
서도 한 명은 총대를 좀 메야 될 거 같다...
아무 말 없이 조 계장을 쳐다보는 익현.
- 13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그래가 우리 끼리 얘기를 좀 해 봤는데... 누가 됐던 간에
총대 메고 옷 벗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 자 쪼매
씩 돈을 보태가 좀 챙기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조 계장에게 맥주를 따르는 익현.
익현
... 총대는 누가 멥니까??
조 계장
그거는 아직 결정 안됐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매고 싶
은데... 나는 계장이다이가... 계장급이 매면 윗선에서 또
부담스러워 할끼고... 아무래도 주임 들 중에 한 명이 안 해
야 긋나...
장 주임 및 동료1,2를 쳐다보는 익현.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여서 부양가족이 젤로 적은 사
람이 총대를 메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니는 어떻노??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치를 보는 익현과 동료들.
느그들 아가 우째되노??
장 주임
예... 저는 아들 셋에 딸 둘입니다...
동료2
딸 넷 아들 하나요...
동료1
저는 딸 셋 아들 둘요...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보는 익현.
조 계장
최 주임 니는??
익현
(힘없는 목소리로) 예... 저는 딸 둘 아들 하난데...
- 14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조 계장과 동료들.
아니... 근데... 제가 아직 시집안 간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동료1
그래 따지면 나는 할매에 할배에... 남동생 서이... 열 명이
다, 열 명...
말없이 익현의 잔에 맥주를 따르는 조 계장.
조 계장
... 자 다들 쭉 한 잔 하자...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익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다.
익현
(정색한 표정으로) 저기 죄송한데 집에 일이 있어가...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
습니다...

조 계장
이 새끼 이거 와 이라노... 앉아라 자슥아...
익현
계장님 진짜 이라시는 거 아닙니다...
조 계장
내가 뭐 자슥아??!!
익현
제가 모를 거 같습니까?? 지금 저 없을 때 똥구멍 다 맞춰
놓고 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딨습니
까?? 예?? 씨발 진짜...
순간 짝~ 익현의 뺨을 후려갈기는 조 계장.
조 계장
이 자슥이 말하는 싸가지 바라... 야 이 자슥아... 누구는 좋
아서 이라나?? 우애 됐든 한 놈은 책임지야 될 거 아이가...
여서 젤 막내가 누군데?? 어?? 그라면 내가 그만두까??!!

익현
(작은 목소리로) 당연히 윗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입니까...
한마디 툭 던지고는 식당을 나가는 익현.

18. 실내. 익현의 집. 밤

2평 남짓 허름한 방, 가구들은 오래되어 볼 품 없지만 TV를 비롯한 전자제
품들은 모두 일제다. 여동생과 여동생의 덩치 좋은 애인에게 절을 받고 있는
익현과 익현의 처. 벽 한쪽에는 익현의 두 딸과 막내아들(6)이 멀뚱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익현
(갑자기 사뭇 어른스러운 말투) 그래, 앉아봐라... 태권도
사범이라 했제??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가??
김 서방
(조심스레) 그... 제가 일하는 태권도 도장에 쪼맨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거서 좀 시작하고... 그담에...
익현
(한 숨 쉬며) 자네가 보기엔 지금 우리 집 사는 게 이래 보
이도... 원래 우리 경주 최씨 충렬공파는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이다... 성공한 집안사람들도 많고... 판, 검사니... 어...
투스타에 포스타에... 대한민국에 잘나가는 사람들은 다 우
리 집안사람들이라 이 말이다...
김 서방
예, 저도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익현
그래 뭐 어찌됐든 아도 생깄고... 서로 사랑한다니깐... 힘
내가 잘 함 살아봐라... (웃으며) 멋지게 생깄네, 남자다워
보이가 좋다...
김 서방
(꾸벅) 감사합니다, 어르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익현
마... 어르신이 뭐고... 행님이라 불러라... 자...

미리 준비한 통장과 롤렉스시계를 꺼내는 익현.
(통장을 건네며) 이걸로 전세 집하나 잡고... (시계를 건네
며) 이거는 결혼 예물이다...
김 서방

(눈치를 보며) ... 괜찮습니다, 행님...
김 서방이 통장을 받나 안 받나 주시하는 익현의 처, 지영.
익현
받아라 자슥아... 니 이뻐서 주는 거 아이다...
어찌하지 못하고 통장과 시계를 받는 김 서방.
(정색하며) 절대... 우리 동생이랑 아들 밥 굶기지 마라...
... 니만 믿는다...
김 서방
(굳은 표정으로) 예...
지영
(울먹이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데 오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게 어떻게 모은 적금인데...
한마디 툭 던지고는 드르륵~ 방문을 열고 나가는 지영.
익현
... 저게 돌았나?
지영의 태도에 잔뜩 화가 난 익현, 하지만 바깥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이내 마음이 무거워진다.
(자식들에게) 느그들도 인사해라... 고모부다... 고모부...
'안녕하세요~'꾸벅 김 서방에게 인사하는 익현의 두 딸과 막내아들.
야가 첫째 유미고.... 야는 둘째 자영이... 그리고 야가 막
내... 우리 삼대독자... 최주한이... 잘 봐나라... 대성 할 놈
이다... 최주한이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뭐고??

주한
(유창한 발음으로) 얼리 버드 캐치즈 더 웜...
어린아이의 유창한 영어실력에 놀라 웃는 김 서방, 익현도 덩달아 기분 좋아 껄껄 웃는다.
익현
또또... 다른 거...
주한
타임 플라이 라이크 앤 애로우...
익현
허허허... 봤제?? 야는 천재다... 천재...
담배 한 대를 무는 익현, 갑자기 표정이 사뭇 진지해진다.
(한 숨 쉬며) ... 내 뭔들 몬 하겠노...

19. 실내외. 부산항 제 3부두 / 트럭 안. 밤

차량 시점, 선원1이 트럭을 몰고 부산항으로 진입한다.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을 지나 일렬로 정박되어 있는 대형 선박들을 따라 달리는 트럭, 잠시 후 같은 패거리로 보이는 선원2가 나타나 손을 흔들며 트럭을 한쪽 선박 앞으로 인도한다. 트럭을 멈춰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선원1, 검은색 스포츠 백 하나를 들고 선박 위에 올라탄다.

20. 실내. 부산항 제 3부두 / 숙직실. 밤

CCTV 화면으로 선원1,2가 선박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보인다.
한쪽 구석에서 화투에 몰두하고 있는 익현과 장 주임.
장 주임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에... 아이고 이거 멍따까지...
익현이 오늘 일당 다 나가네...
장 주임이 점수를 계산하자 짜증난다는 듯 남은 현금을 다 던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익현, 우연히 CCTV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

21. 실내외. 부산항 제 3부두 / 윤타이호 안. 밤

- 18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자물쇠를 풀려다 키를 떨어트리는 선원1, 어딘가 모르게 움직임이 전문가답지 못하고 허술하다. 다시 키를 주워 자물쇠를 풀고 조심스레 연료탱크 밸브를 돌리는 선원1, 스포츠 백을 연료탱크 안으로 집어넣고는 밸브를 잠근다. 이제 됐다 싶어 안도의 한 숨을 내쉬려는 선원1 순간, 강한 후레쉬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추자 눈을 찌푸린다. 반쯤 눈을 뜬 채 후레쉬 불빛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선원1, 보면 떡하니 익현이 후레쉬를 들고 갑판 위에 서 있다.
익현
... 지금 뭐합니까?
선원1
아... 뭐 좀 수리할 게 있어가꼬예...
익현
이 밤에 뭔 수리를 합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선원1,2를 쳐다보는 익현, 조심스레 그들에게 다가간다. 익현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치는 선원1, 순간 허겁지겁 자물쇠 체인으로 익현의 목을 조른다. 후레쉬를 떨어트리는 익현, 켁켁~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더니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있는 힘을 다해 선원1을 밀며 뒷걸음질을 하기 시작한다. 퍽~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해 선박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고는 바닥에 쓰러지는 선원1. 익현은 그제야 조였던 목을 잡으며 숨을 고른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칼을 꺼내들고 자신의 복부를 향해 돌진하는 선원2를 발견하고는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익현, 보면 자신의 복부를 향하던 칼을 양손으로 붙잡은 채 버티고 있다. 뚝뚝~ 익현의 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표정이 점차 일그러진다. 순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퍽~ 익현의 얼굴에 헤딩을 하고는 선원1과 함께 쏜살같이 도망치는 선원2. 우당탕~ 그대로 갑판 위로 넘어지는 익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선원1,2를 뒤쫓아가보지만 둘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 문을 잠근 채 시동을 걸고 있다. 막 현장에 합류한 장 주임과 함께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 익현.
익현
어이 빨리 문 열어라... 어??!! 씨발놈들이... 죽을라고...
익현을 무시하고 부웅~ 재빨리 트럭을 출발시키는 선원1,2.
익현
부산 19마 3450... 19마 3450, 3450... 씨발놈들...
* * * * *
- 19 - 고낙선 촬영감독님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밸브를 돌리는 익현, 장 주임과 함께 연료탱크 안으로 들어간다. 수북이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을 지나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검은색 스포츠 백을 발견하는 익현, 본능적으로 이거다 싶어 지퍼를 열어보니, 스포츠 백 안에는 투명한 비닐에 쌓인 백색 결정체... 히로뽕 10Kg가 들어 있다. 당황하는 익현과 장 주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본다.

22. 실내외. 시내거리 / 차 안. 밤

운전석, 보조석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는 익현과 장 주임, 뒷좌석에는 히로뽕 10Kg가 들어있는 스포츠백이 놓여있다.
익현
(머리를 긁적이다) 장 주임님... 저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장 주임
글쎄... 키로당 300만엔에서 350만엔 정도 한다니깐... 대충 잡아도 십키로면 3000만엔... 뭐 한 5억쯤 안 되겠나...
익현
(화들짝 놀라며) 오억예??? 와... (잠시 정적) 장 주임님... 우리 진짜 이거 일본에 갔다 팔게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는 장 주임.
아니 장 주임님 뭐가 그래 걱정입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미친 인간이 내가 뽕 10Kg 주인이요... 하고 신고하겠습니
까? (붕대 감은 손을 내보이며) 전 진짜 이거 목숨하고 바
꾼 겁니다...
장 주임
...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이가...
익현
장 주임님... 아니 행님... 이거 우리 합시다... 그라면... 내
가 총대 메고 옷 벗는다... 진짜로...
장 주임
(순간 놀라) 진짜?? (금세 표정이 바뀌어) 아이다, 이건 아
이다...

익현
행님... 우리 솔직하게 한 번 얘기 해 봅시다... 국내에 돌리
는 것도 아이고... 일본에 히로뽕 좀 갔다 파는 게 뭐가 그
래 큰 문젭니까? 아니 막말로 우리가 일본 원숭이들한테
식민지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행님? 몇 년 했습니까?
장 주임
30년 쯤 했지...
익현
그렇죠... 3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36년 입니다... 아니
나는 진짜 솔직히 일본으로 히로뽕 수출을 좆나게 해서 그
망할 놈의 원숭이 새끼들이 뽕 처 맞고 다 죽었으면 좋겠
습니다... 아 우리가 일본을 뭐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
까? 아닙니까 행님??!!
장 주임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글치... (잠시 정적) 그래 뭐 좋다...
다 좋은데... 니 일본에 아는 사람 있나? 어데 팔 건데??
익현
... 행님... 아는 사람 없습니까?

23. 실내. 다방. 낮

다방 안에 조용필의 '단발머리' 가 흐르고 있다. 카운터에서 전화를 하고 있
는 장 주임,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듯 초조한 표정이다. 반쯤 마신 쌍화
차를 앞에 놓고 소파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익현, 긴장되는 듯 옆에 있
는 검은색 스포츠 백을 계속 해서 확인한다. 전화를 끊고 익현의 앞좌석에
앉는 장 주임.
익현
... 연락 됐습니까?
장 주임
(고개를 저으며) 안 받는데...
익현
이 새끼가... 지가 깡패두목이면 두목이지... 어린놈이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뭐꼬...

장 주임
이랄 놈이 아닌데... 우짜노??
익현
... 저기 어데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장 주임

내가 아는 놈 중에 야쿠자랑 줄 닿는 놈은 부산시내에 금
마 밖에 없다...
그때, 한 남자가 다방 안으로 들어와 익현과 장 주임 쪽으로 다가온다.
익현
(눈빛으로 가리키며) 행님... 혹시 저 사람 아닙니까?
장 주임
(쳐다보며 긴가민가) 아인 것 같은데...
30대남1이 점점 자신들에게 가까워지자 긴장하는 익현과 장 주임, 하지만
30대남1은 슥 익현과 장 주임의 테이블을 지나 일행이 있는 자리에 앉는다.
익현
(아쉬워하며) 아 씨발... 그냥 갑시다, 행님... 안 오네...
장 주임
그래, 일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방을 나가려하는 익현과 장 주임.
그때, 따르릉~ 전화 벨소리가 다방에 울려 퍼진다.
다방마담
(수화기를 들며) 예... 장미 다방입니다... 장 주임님... 장
주임님 찾는데요...

24. 실내외. 다방 앞 / 형배의 차 안. 낮

다방 앞에 검은색 도요타 승용차가 서 있다.
다방에서 걸어 나와 차량에 올라타는 익현과 장 주임.
차량 뒷좌석에는 콧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른 형배(30)가 앉아있다.

장 주임
(옆에 앉으며) 최 사장... 오랜만이다...
형배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어가... 쪼매 늦었습니다...
너무 건방지지도 그렇다고 주눅 들지도 않은 적당한 톤으로 대꾸하는 형배,
어린 나이지만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하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보조석에 앉아
눈치를 살피던 익현, 고개를 돌리며 손을 쭉 내밀어 형배에게 인사를 한다.
익현
(악수를 청하며) ...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형배
(악수를 받으며) 최 형뱁니다... (기사에게) 출발하자...
형배가 지시를 내리자 '출발 하겠습니다' 복명복창하고는 차를 출발시키는
조직원, 창우(28).

25. 실외. 산길. 낮

익현, 형배, 장 주임이 탄 도요타 승용차가 산길을 올라가고 있다.

26. 실외. 백숙 집 / 앞마당. 낮

도요타 승용차가 산 중, 백숙 집 앞에 도착한다.
차에서 내리는 형배, 익현과 장 주임을 쳐다보며,
형배
... 들어가입시다...
이상한 걸음걸이로 백숙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형배, 자세히 보면 살짝 다리를
절룩거린다.

27. 실내. 백숙 집. 낮

히로뽕 순도체크를 하고 있는 형배, 백색 히로뽕 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
고 라이터 불로 밑에서 달구고 있다. 긴장이 되는지 계속해서 막걸리를 마시
는 익현,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붉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아 보고는 고개

를 끄덕이는 형배.

형배
그라면 인자 일 얘기를 좀 해보입시다... 최 주임이라고 하셨지예??
익현
(깜짝 놀라며) 예?? 예...
형배
이거 보이깐 황 교수 물건 같은데... 뒷감당을 우째 할라고 이랍니까??
형배의 예리한 지적에 놀라는 익현과 장 주임.
이래 하입시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단도리하고... 일본까지 운반도 제가 하는 걸로해서... 협상 없이... 물 값에 반...
(잠시 정적) 우짤랍니까??
장 주임을 쳐다보며 의중을 살피는 익현.
장 주임
최 주임, 그래하자... 단도리에 운반까지 알아서 한다니깐...
익현
(술에 취해 약간 혀가 꼬여있다) 예... 뭐 그라입시다... (형배에게) 근데 제가 시세를 잘 몰라가 그라는데... 그 요새 시세가 어떻습니까?
형배
물건 질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이 정도면 뭐 키로당 350만 엔 쯤 받겠네...
대충 암산을 해보는 익현.
익현
괘안네... 아 근데 형배씨... (순간 실수를 깨닫고) 아... 내 좀 봐라... 형배씨란다... 죄송합니다... 호칭이 애매하네... 그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형배
편하게 최 사장이라고 부르이소...

익현
아 예... 최 사장님... (조심스레) 아 근데 실례지만 어데 최십니까?
형배
경주 최갑니다...
익현
(눈이 둥그레지며) 파는요??
형배
(별걸 다 물어본다는 듯 피식 웃으며) ... 충렬공파요...
익현
(손뼉을 치며)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형배할 때 배가 배자 돌림 아닙니까?? 경주최씨 충렬공파, 39대손...
형배
(약간 놀라며) ... 예...
익현
(흥분하여) 야 이 자슥아... 내가 니 고조 할애비 뻘이다... 어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손... 현자 돌림...
갑작스런 익현의 집안 얘기에 당황해하는 형배.
우하하...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깐... 처음 봤을 때 어 두상이

딱 우리 집안사람 같더라고... 골격도 그렇고... 아 진짜 반
갑네... 악수 한 번 하자...
엉겁결에 익현과 악수하는 형배, 익현은 쭉 술을 한 잔 들이킨다.
아이고야... 마 내 이래 또 집안사람을 만나네...
그 혹시 아버지 존함이 우째 되노??
형배
최자... 무자... 일자... 쓰십니다...
익현
(뭔가를 생각하며) 최 무 일... 최 무 일... 그 몇 년 전까지

참치배 타시던 분 아이가??
형배
... 예... 맞습니다...
익현
야이 자슥아... 내가 느그 아버지랑도 윽수로 잘 안다... 이
자슥이... 마... 니는 할애비를 처음 봤으면 행동을 우째 해
야 되노??
뭔 얘긴가 싶어 멀뚱히 익현을 쳐다보는 형배.
마 할애비를 봤으면 절부터 해야 될 거 아이가... 이 자슥
이... 마 퍼뜩 큰절 함 올리봐라...
기분이 나쁜 듯 표정이 굳어지는 형배, 장 주임은 갑작스런 익현의 오버에
난처한 표정이다.
장 주임
최 주임... 아무리 집안 손자뻘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한
테 이 무슨 실례고...
익현
아 좀 행님은 모르면 가만 있으이소... 우리 집안 전통입니
다... (형배에게) 야이 문디 자슥아... 할애비를 봤으면 냉
큼 큰절을 올리야지... 니 가정교육을 우째 받았노??!! 내가
느그 아버지를 만나가 혼을 한 번 내야겠다... 퍼뜩 절 안하
나??!!
순간, 멱살을 잡으며 익현을 들어 올리는 형배.
익현
(약간 겁먹어) 야 니 지금 할애비한테 뭐하는 짓이고?? 느
그 아버지한테 함 물어봐라... 할애비를 보면 절하는 기 맞
는지 안 맞는지??!!

28. 실외. 백숙 집 / 앞마당. 낮

마당으로 나가떨어지는 익현, 형배에게 멱살을 잡힌다.
익현

(멱살을 풀려하며) 이봐라... 최 사장... 일단 이거 좀 놓
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어... 듣고 판단해라...
익현이 멱살을 풀려하자 더욱 강하게 익현을 끌어당기는 형배.
형배
(피식 웃으며) 손 치아라...
익현
(손에 힘을 빼며) 아니... 최 사장이 내보다 젊고... 주먹세
계에도 오래 있었으니깐 최 사장이 때린다면 내가 맞아야
겠지... 근데... 지금 이래가 뭐가 좋은 긴데?? 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형배.
익현

최 사장... 아니 나이를 떠나서... 최 사장이 내나 같은 부산
사람이고... 한 민족인데... 이건 아이다이가... 어?? 같은 집
안사람들끼리 이래가 좋을 게 뭐가 있노??
형배
(인상쓰며) 그니깐... 와 조디를 함부로 놀리노...
익현
내 너무 반가워가 그랬다... 내가 진짜 최 사장 아버지를 잘
안다... 흥분 가라앉히고 정 열 받으면 내 한 대 치라... (얼
굴을 대며) 그래야 화가 풀릴 것 같으면 내 최 회장... 아니
최 사장한테 한 대 맞을게... 치라...
화가 좀 풀린 듯 멱살을 푸는 형배.
(눈치를 살피며) 내 최 사장한테 엉깔라고 그란 거 절대
아이다... 오대오로 하면 된 다이가... (손을 내밀며) 자 악
수 한번 하고 잘 함 해보자... 내가 잘못 했다, 사과할게...
자... 악수 한번 하자...
형배가 손을 내밀지 않자 민망한 듯 자신의 손을 어루만지는 익현.
(웃으며) ... 아 최 사장 힘 진짜 세데... 숨 막히가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남자데... 허허허...

스스로 생각해봐도 상황이 재밌는 듯 피식 웃는 형배.

29. 실외. 형배의 집 / 앞. 낮

검은색 도요타 차량이 대문 앞에 멈춰 선다. 창우가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는 형배,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30. 실내. 형배의 집. 낮

낡은 한옥, 형배가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 쪽으로 걸어간다. 대청마루에서 형
배의 아버지(53)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익현, 형배에게 손을 흔든다.
형배 부
와이리 늦었노 자슥아... 아부지가 부르면 빨리 빨리 와야지...
꾸벅~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형배, 표정이 좋지 않다.
* * * * *
대청마루 한쪽에 형배 가족 선조들의 사진이 붙어있다. 익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형배 부, 멀찌감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형배.
익현
(일으켜 세우며) 아이고 아버님... 아들 앞인데 편하게 앉
으이소... 이라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형배 부
아닙니다, 대부님... 그건 예가 아닙니다... (모리를 조아리
며) 대부님... 아무쪼록 저희 부족한 아들 잘 좀 부탁드립
니다...
익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배 부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형배를 쳐다보며) 형배야... 여기
대부님이 아부지 배탈 때 엄청 많이 도와주셨다... 여기저기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시니깐 니도 앞으로 대
부님 말씀 잘 듣고... 어이... 깍듯하게 잘 모시라...

형배
(거역하지 못하고) ... 예, 아버지...

형배 부
이 놈아야 퍼뜩 절 안 드리고 뭐하노... 죄송합니다 대부님...
어찌하지 못하고 익현에게 큰절을 올리는 형배, 좋아하는 익현.
익현
그래... 우쩨 니도 담에 아부지랑 해가 종친회 한 번 나온
나... 내가 그 검사니 판사니 우리 집안사람들 함 쫙 소개시
키줄게...
형배
(무덤덤하게) 예, 시간 봐 함가든가 하겠습니다...

31. 실내. 형배의 사무실 / 형배 방. 밤

테이블 위, 탈칵~ 007가방이 열리면 엔화 2000엔이 보인다.
엔화 한 장을 꺼내 위조지폐 감식기로 익현에게 확인시켜주는 형배.
형배
... 한번 확인해 보시지예...
익현
마 됐다, 뭘 또 확인하노... 맞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한 장을 꺼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익현.
형배
대부님... 오늘 저녁에 뭐 하십니까? 일 없으시면 저랑 밥
자리 한 번 하시지예...
익현
그래, 가보자... 니가 힘든 일 잘 처리해 줏는데... 내가 좋
은데 가가 밥 한 끼 사야 안 되긋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익현과 형배, 문을 열고 방을 나간다.

32. 실내. 형배의 사무실. 밤

익현과 형배가 방에서 나오자 90도로 인사하는 형배의 조직원 1O여명.
형배
느그들 일로 함 모이바라... (익현을 가리키며) 여기 이 분
은 내 대부님이시다... 그러니깐 느그들도 앞으로 큰 형님
이다 생각하고 내가 있는 자리던 없는 자리던 대부님을 만
나면 깍듯하게 모신다... 알았나??
일동 우렁찬 목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행님'라고 외친다. 형배가 자신의
조직원들을 소개시켜주자 마치 깡패 두목이 된 듯 의기양양한 익현.
형배
창우 니 일로 와봐... (익현에게) 대부님... 이 친구가 제 바로
밑에 책임잡니다... 앞으로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 친구 불러서 애기하이소... (창우에게) 인사드리라...
창우
(마지 못 해 익현에게 꾸벅 인사하며) 반갑습니다, 행님...
박창웁니다...
익현
(어깨를 두드리며) 어, 그래... 접때 함 봤제... 덩치 좋네...
창우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 와 니도 일 없으면 같이 밥이나 한 끼 하러 가자...
형배
그래... 그라면 오늘 창우 니가 대부님 좀 옆에서 모시라...

33. 실내. 가라오케. 밤

칸막이 식 가라오케, 창우가 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
리'를 열창하고 있다. 각자의 여성 파트너를 내팽개치고 달싹 달라붙어 술을

마시고 있는 익현과 형배, 둘 다 얼큰하게 취해있다.
익현
(술에 취해 혀가 꼬여있다) 형배야... 니도 세상 쪼매만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피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다... 친
구들끼리 우정이니... 남녀 간의 사랑이니 해싸도... 결국
이 피를 나눈 가족한테도 아무것도 아닌기라...

형배
(역시나 술에 취해 혀가 꼬여) 뭔 얘기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현
내가 진짜 딱 니를 처음 보는데... 내 말 오해하지마라... 진
짜 무슨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을 때 맹키로... 딱 온
몸에 전기가 통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졌다니깐... 아 나는
진짜 우리 집안에 니처럼 똘똘한 놈이 있을지는 꿈에도 몰
랐다...
형배
(웃으며) 저 안 똘똘합니다... 대부님...
익현
(잠시정적) ... 형배야... 근데... 내 뭐 하나만 물어보자...
그... 니 가끔씩 다리를 절던데... 그건 와 글로??
형배
(웃으며) 그냥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익현
어데 뭐 싸우다 그래 됐나?
형배
그건 아니고... 와 삼청교육대라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 끌리가가 군바리들한테 좀 당했습니다...
익현
(혀를 차며) 아이고, 쯧쯧... 시대의 희생자네, 희생자... 고
생 많이 했구만...
노래를 다 부른 듯 테이블로 돌아오는 창우.
어... 그래 우리 창우... 노래 잘한다... 목청이 좋네... (창우
의 배를 두드리며) 복식 호흡 하나?? (지갑에서 이십 만원
을 꺼내며) 용돈 해라...
창우
(돈을 받으며) 잘 쓰겠습니다, 행님...

창우의 어깨를 두드리는 익현.
익현
행님이랑 같이 물 좀 빼고 오자...
형배가 눈빛으로 허락을 하자 익현을 부축하고는 화장실로 향하는 창우.
조 계장(Off Sound)
어이... 최 주임...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익현, 보면 조 계장이 사업가 일행들과
함께 한 쪽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다. 그다지 반갑지 않은 만남 인 듯
인상이 구겨지는 익현, 어찌하지 못하고 조 계장의 테이블로 다가간다.
익현
(애써 웃으며) 조 계장님... 요 어쩐 일이십니까... 허허...
조 계장
(실실 쪼개며) 니야 말로 요 왠일이고... (일행들에게) 인

사들 하이소... 얼마 전까지 내랑 같이 일했던 친군데... 와
접때 우리 회사 쫄따구 중에... 재밌는 놈 하나 있다고 얘기
했다 아입니까...
'아 그 분이 시구나,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등 사업가 일행들이 마
치 익현을 잘 아는 것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표정이 굳어지는 익현, 하
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자리에 합석한다.
익현
제가 한 잔 씩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술을 따르며) 자 다 같이 한 잔 하입시다... (잔을 들며)
간빠이...
일행들이 술을 마시자 손으로 안주를 집어 일일이 입에 넣어주는 익현.
갑작스런 익현의 행동에 일행들 당황하지만 웃어넘긴다.
사장님들 우리 조 계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 계장님
이 생긴 건 좀 이래도... 사람이 속이 참 깊고 넓습니다...
익현의 얘기에 동의하며 웃는 일행들.

조 계장
(기분 나쁜 듯) ... 마 니 와 이라노?? 취했나??
익현
안 취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재밌는 놈 아닙니까... 허허허...
조 계장
이 새끼 취했네... 취했으면 조용히 드가라 임마...
익현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로 오해도 좀 풀고...
조 계장
무슨 오해 임마?? 돈 없어가 힘들어 죽겠다던 놈이 가라오
케에서 술 물 돈은 있는갑네... 뭐 좋은 일 있나??
익현
(피식 웃으며) 계장님 만난 게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 이
지예... 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 계장에게 다가가는 익현.
(일행들에게) 사장님들... 우리 조 계장님 잘 좀 부탁드립
니다... 맛있는 것 도 많이 좀 사주시고... 빠구리 아니...
(실실 쪼개며) 코도 좀 자주 자주 풀어주시고...
순간 익현의 멱살을 잡는 조 계장.
조 계장
이 자슥이 뭐라 씨부리샷노... 마 니 돌았나 자슥아...
익현
(여전히 웃으며) 와예??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손
으로 시늉을 하며) 계장님 코푸는 거 좋아한다 아입니까...
(지갑을 꺼내며) 우째 오늘 제가 함 보내드릴까예???!!
쫙~ 화를 참지 못하고 익현의 뺨을 사정없이 갈기는 조 계장.
순간, 익현이 조 계장의 목을 조른다.
익현

(버럭) 때리지마라, 씨발놈아!!!
참고 있던 익현이 맞대응하자 아수라장이 되는 술자리.
옆에서 지켜보던 창우가 보다 못해 끼어들어 조 계장의 멱살을 잡는다.
창우
(노려보며) 니 뭐고 씨발놈아...

조 계장
(순간 겁먹어)... 니는 뭔데?? 와 반말이고??!!
퍽~ 조 계장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익현, 철퍼덕~ 바닥에 쓰러진 조 계장을 사정없이 구타한다.
익현
씨발놈아... 와 지랄이고... 내가 아직도 니 부하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좆도 아인 게...
퉤~ 바닥에 침을 한 번 뱉고는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익현.

34. 실외. 외딴섬 바닷가 / 배. 낮

테마음악 흐르는 가운데 바다 위를 가로질러가는 요트의 모습이 보인다.
* * * * *
음악 계속 되는 가운데 인적이 드문 바닷가 앞에 익현과 형배가 요트를 세워두고 수영을 하고 있다. 서로의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으려 하며 장난을 치고 있는 익현과 형배.
* * * * *
회를 뜨고 있는 형배, 익현은 상갑판에 기대에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형배
이천에서 삼천정도 생각하면 그만한 장사도 없습니다...
자리만 좋은데 잡아놓으면 신경 쓸 일도 없고...
익현
단속 같은 건 얼마에 한 번씩 나오노? 그 와 뽀찌 값이 더
나갈 수도 있다이가...

형배
(웃으며) 그거야... 뭐 관할 짜바리들 친척 중에 하나 카운
터에 박아 놓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회를 들고 익현의 옆으로 다가오는 형배.
익현
이래저래 안 뜯기고 한 놈만 맥이면 된다, 이 얘기제? (결
심한 듯) 그래, 하나 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 도박이라면
환장 안 하나...
낼름 회를 삼키는 익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고함을 지른다.
우아아아~~~ 아 오늘 진짜 날씨 직이네... (형배에게) 형
배야... 니 내가 왜 세관 다니게 됐는지 아나?? 뭐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답답하이 사무실에만 갇히 있는 것 보다
는 넓은 바다 쫙 보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노?? 안 글라??
수영을 하느라 풀어놨던 금 목걸이와 롤렉스시계를 차는 형배.
익현은 그런 형배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본다.
형배
말 마이소... 저도 갇히 있는 건 딱 질색입니다...
익현
아... 원래 내 같은 기운을 가진 놈은 군인이 되야 맞는긴
데... 인생 꼬있다 꼬있으... 우아아아아~~~~ (형배에게)
니도 함 시원하게 질러봐라...
아무 대답 없이 익현을 바라보며 씩~ 웃는 형배.
우아아아아아아아악~~~!!!

35. 익현의 변신 몽타주

- 익현의 집 -
다시 테마음악 흐른다, 형배와 똑같은 롤렉스시계와 금목걸이를 차는 익현.
- 시내 거리 -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앞 거리, 고급 세단에서 익현이 형배와 함께 내린다. 창우가 문을 열어주자 창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는 익현, 3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받는다.
- 도박장 -
손님들로 붐비는 도박장, 건달풍의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익현이 색안경을 끼고 형배와 함께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조직원들의 볼을 쓰다듬는 형배의 행동을 보고는 따라하는 익현, 도박장을 관리하는 조직원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준다.
- 카바레 -
익현과 형배가 10여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슴 큰 여가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행들.
형배
(여가수의 가슴을 보며) 살아있네...
창우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있네예...

36. 실내. 익현의 집. 아침

멀리 바다가 내다보이는 고급 빌라 전경, 조직원6이 세차를 하고 있다.
자막 '1985년 11월, 부산 '
아침 햇살이 길게 집안을 비추는 가운데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익현의 가족들, 교복을 입은 중학교 1,2학년 두 딸과 막내아들 주한(9) 그리고 그의 부인, 지영의 모습이 보인다. 식사를 먼저 끝낸 듯 '성문 기본 영어' 단어장을 보고 있는 익현.
익현
(콩글리쉬 발음으로) resist... resist...
주한
(밥을 먹다 말고) 저항하다, 방해하다, 참다... 동의어는
oppose, counter, contest...

익현
오 자슥이... 오늘은 줄줄 나오네... 그라게 정신 차리고 하
면 잘 하는 놈이... 꼭 아부지가 화를 내야... 허허허...
주한의 머리를 쓰다듬는 익현.
자 다음... (F발음을 강조하며) refresh... refresh...

37. 실내. 호텔 사우나 / 휴게실. 낮

목욕 가운을 입은 익현이 신문을 들고 휴게실로 들어온다. 예전과는 달리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익현, 걸음걸이가 형배와 비슷해져 있다. 소파에 앉으려하다 아는 사람을 본 듯 다가가는 익현.
익현
아이고... 허 사장님... 이기 얼마 만입니까?
허 사장
(놀라며) 최 주임 요서 뭐하요? 일 할 시간 아닙니까?
익현
아 허 사장님 모르셨구나... 저 한 삼년 전에 세관 관뒀습니다...
허 사장
아니 그 계란 노른자 같은 자리를 와 그만둡니까?
익현
사람 직업이라는 게 결국엔 적성에 맞게 가게 됩디다.. 앉
읍시다... 이래 서가 얘기 하지 말고...
소파에 앉는 익현과 허 사장.

(종업원에게) 야 여기 시원한 식혜 두 잔 가와 바라... (허
사장에게) 원래 사우나 여기 댕깄습니까?
허 사장
내야 맨날 요 출근하지... 바로 사무실 앞이다이가...
익현
아 그라면 앞으로 자주 보겠네... 비즈니스 선배로서 좋은
아이템 있으면 추천 좀 해주고 그라이소...

그때, 급한 연락이 온 듯 조직원6이 익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전한다.
그래, 잘했다... 내 곧 나가니깐 차 좀 빼놔라...
'예, 알겠습니다~'꾸벅 인사하고는 자리를 뜨는 조직원6.
허 사장
(놀란 눈빛으로) ... 누굽니까?
익현
(거만한 어투로) 아 뭐 그냥 이래저래 내 심부름 좀 하는
압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허 사장, 그때 종업원이 식혜 두 잔을 가지고 온다.
쭉~ 식혜를 들이키는 익현.
(잔을 내려놓으며) 아... 살아있네... 허 사장님도 한 잔 하
이소... 식혜 완전 살아있네...
허 사장
(조심스레) 최 주임... 내 뭐 사실 최 주임한테 할 얘기는 아
닌데... 혹시 건달들 중에 친한 사람 좀 없나?
뭔 얘긴가 싶어 귀를 쫑긋 세우는 익현.

38. 실내. 88 나이트클럽. 밤

성인 남녀들로 혼잡한 대형 나이트클럽, 스테이지 위에서는 댄서들이 흰색정
장을 입고 '칭기스칸'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웨이터의 안내에 따라
나이트클럽으로 들어오는 익현과 허 사장, 한 쪽 홀에 자리를 잡는다.
익현
아니... 평일에도 이래 사람이 많은데... 장사를 뭐 우째 하
길래 수익이 안 난다는 얘깁니까?
허 사장
내 말이 그 말 입니다... (손짓을 하며) 저... 저기 덩치 큰
놈들 보이지요...
한쪽 구석에서 웨이터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 강 상무와 조직원

들, 딱 한눈에 봐도 건달이다.
점마들이... 아까 내가 얘기 했던 금마들입니다... 아니 최
사장도 보면 알겠지만 이래 장사가 잘되는데... 월말만 되
면 접대비니 경비니 하면서 다 까뿌니깐... 이건 뭐 매달 이
익금은 고사하고 운영비만 몇 백 씩 더 나간다니깐...
익현
(혀를 차며) 행님도 진짜 바보네... 그래가 그걸 가만 놔뚜
습니까?
허 사장
뭐 우짭니까? 내도 그렇고 다른 사장들도 그렇고... 혹시나 건달
들한테 해꼬지라도 당할까봐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익현
그라면 점마들은 누가 델꼬 와가 앉힌 놈들입니까?
허 사장
그 사장 중에 지분을 40프로 가진 여 사장이 있는데... 그

쪽에서 부른 아들입니다... 내 보이깐 그 여사장만 점마들
하고 짝짝꿍해가 매달 돈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익현
행님이 가진 지분이 몇 프로라 했습니까?
허 사장
24프로요... (뭔가를 본 듯) 저기 오네... 점맙니다, 점마...
그때, 조직원 10여명의 호의를 받으며 가게로 들어오는 판호.
점마가... 김판호라고... 여기 전뭅니다... 아까 강 상무도 점
마 부하고... 내 듣기로는 부산 시내에서 넘버 원 투 하는
건달이라 카데요...
판호를 유심히 쳐다보는 익현.
익현
(무심히) ... 살아있네...

39. 실내. 일식집 / 로비. 밤

단체 회식 및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붐비는 고급 일식집, 그 중 형배의 조직
원 3~4명의 모습도 보인다.

40. 실내. 일식집 / 룸. 밤

테이블에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익현과 형배.
익현
(흥분한 말투로) 큰 걸로 두 장, 이년 전에 딱 자기가 산
가격으로 넘긴다 카더라니깐... 내랑 진짜 많이 친하거든...
형배
판호 금마... 원래는 제 식구였습니다... 저랑 나이도 갑이
고... 근데... 어찌됐든 다른 식구긴 해도 한솥밥 묵다가 분
가한 놈이 봐주는 덴데... 내가 나서면 명분이 없는데...
익현
글라? 금마들이 그래 쎈 아들이가? 니가 못 이기나??
형배
(자존심이 상한 듯) 아니, 대부님... 그런 얘기가 아이라...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건달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
데... 주먹으로 하면 백프로 내가 이기지...
그때, 드르륵~ 문을 열고 요리를 갖다 주는 종업원.
익현
야... 이거 말고... 오늘 들어온 전복 좀 가온나...
종업원
저기 사장님... 그 오늘 모임하셨던 사모님들 지금 가신다
는데예...
익현
아 그래? (형배에게) 좀 묵고 있어라...
급히 룸을 빠져나가는 익현, 계산을 하고 있는 사모님들에게 다가간다.
익현
벌써 가십니까? 우째 음식이 입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모1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익현
아이고 잘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의원님은 잘 지내시지
요?? (꾸벅 인사하며) 살펴서 들어가이소...
* * * * *

드르륵~ 다시 문을 열고 룸으로 들어오는 익현.
형배
(웃으며) 대부님...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이라다 재벌
되겠습니다...
익현
짜달시리 그런 것도 없다... 노상 무슨 경찰 간부 회식이니,
검찰 간부 회식이니... 간부 사모들 회식까지... 돈 안 된다...
자리에 앉는 익현.
(잠시 생각하다) 형배야... 니 아까 명분이 없다고 했제...
근데 와 명분이 없는데?? 니랑 내랑은 가족아이가... 그것
보다 중요한 명분이 세상에 또 있나?? 내말이 틀렸으면 틀
렸다고 얘기해봐라... 아이가??!!

41. 실내외. 시내도로 / 익현의 차 안. 낮

익현과 김 서방이 차량 뒷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익현
와?? 안내키나?? 자신 없나??
김 서방
아니... 사실 행님이 저를 우째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무도인 출신 아닙니까?? 무도인으로서
밤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익현
지랄한다... 야이 이기적인 새끼야... 내는 좋아서 이 지랄

하는 줄 아나... 나도 임마 젊었을 때는 육사가가 쫄다구들
천 명씩 거느리면서 어... 그래 폼나게 살고 싶었다... 근
데...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가족들은 누가 먹이 살
리노??!!
아무 대답 없는 김 서방.
니 새끼도 니처럼 살게 놔뚤래?? 어??!! 적어도 니 새끼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폼나게 살아야 될 거 아이
가??!! 맞나 아이가!!??
굳은 표정으로 한 숨을 내쉬는 김 서방.

42. 실외. 88 나이트클럽 / 앞. 낮

익현의 차가 88 나이트클럽 앞에 멈춰 선다. 김 서방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익현,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허 사장을 대동하고 나이트클럽 입구로 향한다.
조직원7
(익현 일행을 저지하며) ... 뭔 일입니까?
김 서방
(거만한 어투로) 비키라 자슥아... 간부회의 하러 왔다...
김 서방에 덩치에 겁먹어 길을 비켜 주는 조직원7.
유유히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익현과 일행들.

43. 실내. 88 나이트클럽 / 복도. 낮

익현과 일행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무실 앞에 멈춰서는 익현, 긴장되는 듯 침을 한 번 꿀꺽 삼키더니 결심한 듯 철컥~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린다.

44. 실내. 88 나이트클럽 / 사무실. 낮

쾅~ 문 열리는 소리에 10여명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린다. 대차게 문을 박차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익현과 일행들, 자신들을 노려보는 조직원들을 지나 여사장(35), 판호, 동업자1,2가 앉아 있는 한 쪽 테이블로 걸어간다.

익현

(당당하게 자리에 앉으며)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
오늘부터 같이 동업하게 된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 사장에게 악수를 청하는 익현.
여기 허 사장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것 보다
훨씬 미인이시네...
여사장
(악수를 받으며 피식) 그래요? (판호를 가리키며) 서로 인
사하세요... 저희 가게 김판호 전뭅니다...
자신을 노려보는 판호를 보고는 긴장하는 익현, 어렵게 악수를 청한다.
익현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익현을 노려보며 악수를 거부하는 판호.
(민망한 듯 손을 빼며) 허허...
여사장
그래 뭔 얘길 하시려고 이래 다 모이라 했습니까?
익현
아... 딴 게 아니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내며) 다들 아
시겠지만 여기 허 사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일을 그
만두신다 해가 제가 허 사장님 지분24프로를 매입했습니
다... 어... 그라니깐 오늘부로 제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동
업자라 이 얘깁니다...
여사장
(서류를 보며) 그 얘기 할라고 다 모이라 한 겁니까?
익현
아 뭐 그것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니 내도 이제
이 가게에 주인이 된 거니깐... 가게가 우째 돌아가는지도
알아야겠고... 또 뭐 내가 동업자들한테 특별히 부탁할 것
도 있고 해가... 겸사겸사 해서 이래 모이라 했습니다...
여사장

(기분 나쁜 표정으로) ... 뭔 부탁을 하실 건데요??
익현
(웃으며) 아이고 우리 사장님 억수로 까칠하시네... 그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제가
입장권 판매랑 가게 일일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담배를 하나 꺼내 무는 익현.
(불을 붙이며) 내 얘기를 들어보니 중간에 세는 돈이 억수
로 많다 카던데... 합법적인 사업체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되
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어...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게에 제 사람을 하나
배치해야겠습니다...
여사장
(피식 웃으며) 어떤 사람을요??
익현
(김 서방을 소개하며) 여기 이 친굽니다... 이쪽 일에 경험
도 많고 유능한 사람이니깐... 우리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김 서방에게) 인사드리라...
자리에서 일어나 동업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김 서방. 그때, '씨발~'독기어린
욕을 내뱉으며 마시고 있던 커피를 테이블 위에 던지는 강 상무.

강 상무
(익현에게 다가오며) 이 새끼가 듣자듣자 하니깐... 어이...
당신 뭐야?? 어디서 얼굴도 없는 놈이 기 들어 와가 이래
라 저래라 지랄이고?? 어??!!
익현에게 다가오는 강 상무를 몸으로 저지하는 김 서방,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나름 깡이 세다. 어이없어하는 강 상무, 피식 웃는다.
강 상무
(멱살을 잡으며) 니는 또 뭐고?? 어?? 니 어디 식구고??
판호
마... 니 뭐하노... 어른들 얘기 하고 있다이가 자슥아...
'죄송합니다, 행님'화를 삼키는 강 상무, 멱살을 푼다.

여사장
(담배 한 대를 물며) 보시다시피... 우리 가게에는 이미 유
능한 상무가 있어서... 최 사장님이 부탁하신 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익현
(웃으며) 와 진짜 더럽게 나오네... 이라면 나도 가만히 못
있는데...
여사장
(피식 웃으며) 어서 굴러먹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그만 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깁니다...
담배 연기를 익현에게 내뿜는 여사장.
익현
이 씨발년이... 말하는 싸가지 바라...
그때, 갑자기 퉤~ 하고 익현이 여사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런 씨발새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익현의 멱살을 잡는 강 상무.
강 상무
야 니 진짜 죽고 싶나?? 어 뱃대지 시원하구로 칼 하나 박
아 줄까??!!!
지지 않고 강 상무의 멱살을 잡는 익현.
익현
박을 수 있으면 하나 박아봐라... 어??!! 낼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기사 하나 내줄게... 함 쑤시바!!!
익현이 힘에서 밀리자 강 상무를 떼어내려 하는 김 서방. 순간, 판호의 지시
에 따라 10여명의 조직원들이 익현과 김 서방을 둘러싸 구타하기 시작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익현에게 다가오는 판호, 익현의 머리끄덩이를 붙잡는다.
판호
(머리끄덩이를 흔들며) 어이... 동업자 양반... 나이도 물
만큼 묵은 양반이 와 되도 안한 개아리를 틀고 그라노...
겁먹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익현에게 퉤~ 침을 뱉는 판호.

(조직원들에게) 마... 여기 이 양반 집에 가신단다... 델따
주라...
익현, 김 서방, 허 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는 조직원들.
45. 실외. 88 나이트클럽 / 앞. 낮
익현, 김 서방, 허 사장이 조직원들에게 질질 끌려나와 땅바닥에 패대기쳐진다.
익현
(고함치며) 마 느그 내가 누군지 아나??!! 어??!! 이 새끼
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느그 이래 나왔제??!! 좀만 기다
리라... 씨발놈들... 진짜 죽을라고...

익현의 악다구니를 보고는 피식 웃는 조직원들.
(허 사장에게) 행님은 이제 집에 드가이소... 이제 다 됐습
니다...
어디론가 달려가는 익현, 뒤 따라가는 김 서방... 나이트클럽 앞 건물 2층 다
방으로 올라간다.

46. 실내. 다방. 낮

익현이 다방으로 들어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배와 30 여명의 조직원들에
게 다가간다.
익현
(웃으며) 형배야, 됐다... 빨리 가자...
내키지 않는 듯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는 형배.
(눈치를 보며) 와?? 뭔 일 있나??
형배
솔직히 좀 안 내킵니다... 수도 너무 빤히 보이고...
맞은편 자리에 앉는 익현.
익현

이제 와가 그기 뭔 소리고... 밑밥 제대로 던지가 지금 딱
물었다... 땡기기만 하면 된다니깐... 빨리 가자...
고민하는 형배.

47. 실외. 88 나이트클럽 / 앞. 낮

익현과 형배 그리고 각종 연장으로 무장한 형배의 조직원들 30여명이 88 나
이트클럽 앞으로 돌진한다. 쪽수를 보고는 놀라 가게 안으로 도망치는 판호
패거리들.

48. 실내. 88 나이트클럽. 낮

형배와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온
다. 우당탕~ 하는 소리에 뭔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 나오는 판호와 강 상무.
형배
(판호를 보며) 간만이네...
판호
(약간 겁먹은 듯) 어 기척도 없이 여는 웬일이고...
* * * * *
익현, 형배, 판호가 한쪽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형배
나도 오늘 처음 들었다... 여가 니 구역이긴 해도 우째 됐든
우리 집안 어른이 하시는 사업인데... 내가 뒤를 봐주는 게
좋은 그림 아이겠나...
긴장 되는 듯 계속해서 라이터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판호.
판호
(한 숨을 쉬며) 그라면 이래 하자... 가게에 각자 아들 반반
씩 배치하는 걸로 하고... 나가는 우리 아들한테는 퇴직금
이니 뭐 그런 명분으로 쪼매 챙기주는 걸로...
형배
나가는 아들 퇴직금은 오케이... 그건 내가 업주들한테 얘
기하가 최대한 많이 뜯을 수 있게 신경써줄게... 근데 느그

아들이 가게에 있는 건 안 된다... 한 업소에 우째 다른 식
구들이 같이 있노??!!
판호
야 임마... 나도 가오가 있다이가... 나도 더 이상은 양보 못

한다...
형배
(웃으며) 와 이 새끼 말하는 싸가지 봐라... 이제 임마 소리
까지 하네...
익현
(끼어들며) 저기 봐라... 우리 형배 친구라니깐... 내 말 놓
을게...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다... 내 나이 사
십 가까이 처무가 머리털까지 뜯기 가면서 봉변당했지만서
도 우리 형배 친구라 하니깐 이래 참는다 아이가... 내가 힘
이 없어가 이래 참고 있겠나... 순리대로 하자, 순리대로...
판호
(애써 화를 참으며) 아까 일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
니다...
형배
(담배를 물며) 아까 그 여 사장이 니 좆집이가?? 니 지금
그 가시나한테 쪽팔리가 이라나??
판호
(정색하며) 새끼야... 말이가 그기...
형배
(피식 웃으며) 새끼?
손으로 테이블에 세팅되어있는 양주와 안주를 쓸어버리는 형배.
(손가락질 하며) 불 함 붙이 봐라...
판호
(애써 웃으며) 아 새끼 이거 와 이라노... 자...
판호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자신에게 밀자 씩~ 한 번 웃는 형배, 다시 라이
터를 판호 쪽으로 민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적.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다시 형배 쪽으로 밀며) 형배
야, 내 어릴 때 니 담뱃불 붙이던 김판호 아이다...
형배
(쓴 웃음을 지으며 불을 붙인다) ... 니 오늘 좀 맞자...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부킹등을 들고 판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형배.
으으~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판호, 연달아 들어오는 형배의 공
격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 보지만 한번 시작된 형배의 폭력은 부킹들
이 온전히 부러지고도 멈추지 않는다. 같은 편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형배의
잔인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익현.

49. 실외. 부산 지방 검찰청 / 앞. 밤

부산지방 검찰청 전경, 늦은 시간임에도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자막 '1990년 9월, 부산'

50.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강력부 숙직실. 밤

TV화면, 뉴스에 익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앵커1(V.O)
청부폭행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어제 오후 긴급 체포된 최
익현씨에 대해 부산지방 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의해 검거되는 익현의 모습 - #3 및 판호의 사진과 범석의 기자회
견 장면 등이 차례로 흘러나온다.
검찰은 양씨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두목 김
판호씨를 지명 수배하는 한편 그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범석, 뉴스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의를 걸친다.
범석
오늘 새벽부터 잠복 한다고 했나?? 나 잠깐 눈 좀 붙일테
니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깨워...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범석에게 인사하는 팀원들.
팀원4가 범석이 숙직실을 나가자 눈치를 살핀다.

51.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구치감. 밤

어두컴컴한 구치감 내부, 익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술서를 쓰고 있다.
그때, 끼이익~ 문을 열고 구치감 안으로 들어오는 팀원4(서 계장), 익현에
게 음료수를 건넨다.
팀원4 (서 계장)
(아는 사람인 듯) 최 사장님 우째 있을 만 합니까?
익현
아니 대체 이기 뭔 일이고??
팀원4 (서 계장)
저도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건 없
으시지예??
익현
(잠시 고민하다) 서 계장... 내 전화 한통만 하자...
팀원4(서 계장)
(곤란한 듯) ... 그건 진짜 좀 힘듭니다...
익현
서 계장... 우리 관계가 이거뿌이 안됐나?? 아니... 집에 뭐
우째 됐다 얘기는 해 주야 될 거 아이가... 마누라랑 아들
걱정 되가 잠도 못 잤을 낀데...
고민하는 팀원4(서 계장).
고 저번에 자갈치에 신동아 상가 분양 신청한건 잘 됐나?
(웃으며) 내 함 알아본다는 기 깜빡했네...

52. 실외. 주택가 / 차량 안. 낮

전형적인 80년대식 저층 아파트 앞에 검은색 구형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선다.
강상무가 문을 열자 차에서 내리는 판호, 슥 주위를 한 번 살핀다.

- 차량 안
차량 시점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판호의 모습이 보인다.
잠복 중인 검찰청 팀원1,2, 조심스레 무전을 교환하더니 차에서 내린다.
- 아파트 앞
조심스럽게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판호,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팀원1,2를 발
견한다. 힐끔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발걸음을 차량 쪽으로 돌리는 판호.
팀원1
(고함치듯) 김판호!!!
고함과 동시에 팀원1,2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쏜살같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
하는 판호, 강상무가 팀원1,2와 몸싸움을 버리는 틈을 타 도주에 성공한다.
화풀이 하듯 강상무를 구타하는 팀원1,2.

53.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복도. 낮

범석이 부하직원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다.
팀원1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루트는 최대한 동원해서 사방팔방
으로 케고 있으니깐에...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범석
최대한 언제?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잡힐 놈도
안 잡혀... 지금 김판호 내연녀 집 앞에 몇 명이나 있어?
팀원1
예, 현재 저희 팀 삼명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범석
지금 당장 철수 시키고...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알아봐...
그래야 안심하고 기어 나오지...
그때, 뒤에서 '검사님~'하고 여직원이 자신을 부르자 고개를 돌리는 범석.
여직원
조 검사님... 부장님이 찾으시는데요...

54. 실외. 88 나이트클럽 / 앞. 낮

각종 화한이 나이트클럽 정면 양쪽으로 즐비하게 줄서있다.
88나이트클럽 간판을 보스나이트클럽으로 바꾸고 있는 김 서방과 조직원들.
자막 '1985년 11월, 부산'

55. 실내. 88 나이트클럽. 밤

많은 손님들로 붐비는 나이트클럽 홀, 상무가 된 김 서방이 웨이터들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고 한쪽 테이블에선 익현, 형배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다. 그때, 익현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는 여 사장.
여 사장
(비꼬듯) 최 익 현 씨... 우리 잠깐 좀 봅시다...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익현, 껄껄 대며 크게 웃기 시작한다.
익현
재밌네... 그래 함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 사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는 익현.

56. 실내. 88 나이트클럽 / 사무실. 밤

여사장
(목청 높이며) 아니 전무에... 상무에... 영업 부장 자리까
지 내 줏는데... 경리까지 박겠다는 건 무슨 개소립니까??
익현
아 그거?? 아니 내가 보이깐 경리 아가씨가 중간에서 삥땅
을 좀 많이 치데...
여사장
(어이없는 듯 웃으며) 삥땅 같은 소리 하고 처 자빠졌네...
(손가락으로 익현의 머리를 밀며)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삥땅을 누가 칠라 하는데... 어??!!
짝~ 여사장의 뺨을 후려갈기는 익현.

익현
야이 씨발년아... 니는 청소부 옷 입고 밀대나 밀면 딱인 년이
다... 사장 자리에 앉혀 놓은 것 만 해도 고마운지 알아야지...
여사장
니 지금 내 쳤나?? 어?? (익현을 때리며) 야 이 새끼야...
니가 진짜 사람새끼가... 어?!!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지지 않고 익현의 머리끄덩이를 붙잡는 여사장.
(악을 쓰며) 야 이 개새끼야... 치봐라... 더 치봐라!!!!
여 사장이 익현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흔들자 엉키는 두 사람.

57. 실외. 88 나이트클럽 / 앞. 밤

오고가는 손님들로 번잡한 밤거리, 경찰차 한 대와 봉고차 두 대가 나이트클럽 앞에 멈춰 선다.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나이트클럽 안으로 돌진하는 20여명의 사복경찰들.

58. 실내. 88 나이트클럽. 밤

- 나이트클럽 홀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이트클럽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복경찰들, 민간인들을 한쪽으로 대피시키며 형배 일행들에게 다가간다. 갑작스런 형사들의 등장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형배와 조직원들,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미 형사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라 어찌하지 못 한다.

형사2

(동료들에게) 잡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구방망이, 쇠파이프를 들고 조직원들을 후려치는 형사들, 몇 몇 조직원들이 저항해 보지만 역부족이다.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혼자 도망가는 김 서방, 어찌하지 못하고 검거 당하는 형배와 조직원들.

- 나이트클럽 사무실

쾅~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세 명의 사복경찰, 여 사장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익현에게 수갑을 채운다.

형사1

중부서 강력겝니다... 같이 좀 가입시다...

익현

(당황하며) 뭡니까? 예? 아 이거 와 이랍니까?? 뭔데 지금??

사복경찰에게 끌려 나가는 익현.

59. 실내. 부산 중부 경찰서 / 강력계. 밤

철컹~ 강력계 조사실의 쇠창살문이 열린다. 사복경찰에게 이끌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는 익현, 강력계 안은 밤늦은 시간이지만 조사 받는 형배 조직원들로 어수선하고 시끄럽다. 잠시 후, 경찰들에게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강력계로 들어오는 여사장, 허리를 꼿꼿이 세운 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다. 익현에게 다가와 수갑을 풀어주는 형사1.

형사1

(의자를 가리키며) 요 앉아...

익현

그 내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반말 하지마라...

퍽~ 익현의 머리를 후리는 형사1.

형사1

이 새끼가... 뭘 잘했다고... 앉아 임마...

순간, 쫙~ 곧바로 형사1의 뺨을 후려갈기는 익현.

익현

이 씨발새끼가... 마 니 돌았나??!!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리노... 어?!! 느그 서장 어딨어??!! (버럭) 서장 불러와!!!

순간, 서장이라는 말에 기가 죽은 형사1.

형사1

... 저희 서장님은 와예?

익현

야이 새끼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느그 서장이랑 내가 임마... 확 마 새끼 차 직이뿔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다급해진 고참형사가 익현에게 다가온다.

형사2

저기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익현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이틀
전에도 같이 밥 묵고 사우나 갔다 왔다...
형사2
아 그래예?? 그라면... 선생님 일단 좀 앉아서 애기하입시
다... (형사1에게) 이 형사... 일단 사과드리라...
형사1
... 죄송합니다...
형사1의 사과를 받고는 의기양양해진 익현.
익현
어이... 당신... 당신 수사할 권리를 어디서 위임 받았노??
형사1
(갑작스런 질문에 놀라며) ... 예???
익현
(피식 웃으며) 완전 개판이네... 경찰이 그런 것도 모르
나??!! 당신은 수사할 권리를 법률로 위임받은 거야... 법률
로... 당신 경찰 시험 칠 때 형사 소송법이니 뭐 경찰 직무
직행법 그런 거 공부 안했어?? 법 대로하라고!! 법대로!!
* * * * *
커피자판기 앞에서 형사2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익현.
익현
아니 내가 잘했다는 게 아이라... 사람이 사업을 하다보면
동업자끼리 언쟁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언쟁이 붙다보
면 육체적인 접촉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입니까...
형사2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깐 그만 돌
아가시고... 저희가 차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형사2의 눈치를 살피는 익현,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꺼낸다.
익현
(눈치를 보며) 그 내랑 따로 쪼매만 더 애기 하입시다...

60. 실내. 부산 중부 경찰서 / 유치장 복도. 밤

유치장 창살 속에 갇혀 있는 형배, 철컹~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61. 실내. 부산 중부 경찰서 / 면회실. 밤

면회실로 들어오는 형배,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익현에게로 다가간다.
익현
(혀를 차며) 아 꼬라지 바라,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자...
익현이 준비해온 옷을 건네자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는 형배, 온몸이 문
신으로 도배되어있다.
* * * * *
옷을 갈아입어 제법 말끔해진 형배, 익현의 얘기를 경청한다.
익현
내 생각에는 판호 그 새끼랑 여사장이 같이 말을 맞춘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우리 둘 다 동시에 이렇게 될 수가 없
거든...
형배
어떻게... 저희한테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까?
익현
내사 뭐 짜달시리 문제없는데... 니가 문제지... 그 여사장이
장사하면서 이래저래 강력계 사람들을 잘 챙겨 준 것 같더

라... 그라고 일단 판호가 많이 다쳤다이가... 전치 12주란다...
형배
(피식 웃으며) 양아치새끼 쪽 팔리는 줄 알아야지... 건달이

라는 놈이 몇 대 맞았다고 고소를 해...
익현
그래도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깐... 걱정하지마라...
형배
뭔 생각이 있으신가 보지예??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익현.

62. 실내. 종친회 사무실. 낮

붓글씨와 옛 선조들의 초상화로 가득한 사무실 내부, 기사1,2가 에어컨을 설
치하고 있고 나이가 지긋이 든 종친회 임원들이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바
둑과 장기를 두고 있다. 사무실 내실에서 종친회 총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익현, 총무는 족보를 펼쳐 놓고 무언가를 찾고 있다.
총무
(족보를 넘겨가며) 최 형배, 최 형배... 아 여 있네요... 39
대손... (뭔가 생각난 듯) 아 무일씨 아들... 이놈아 이거...
어릴 때부터 소년원 들락거리고 그랬던 놈인데... 대부님
맞습니까?
익현
(멋쩍게 웃으며) 예... 맞습니다...
총무
(난처해하며) 대부님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저도 그놈아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아는데... 뭐 할라고 그래 싹수가 노란
놈을 도와주실라고 합니까?
익현
(웃으며) 예, 총무님 말이 맞습니다... 싹수가 노란 놈이지
예... 하지만 싫던 좋던 같은 집안 식군데... 먼저 구해주고
나중에 꾸지람으로 훈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처해하는 종친회 총무의 얼굴을 보고는 돈 봉투를 꺼내는 익현.
사고를 좀 많이 치기는 했어도 본래 본성이 나쁜 놈은 아
닙니다... (돈 봉투를 건네며) 그리고 이거는...

총무
(봉투를 챙기며) 아이고 무슨 이런 걸... 예, 예, 맞습니
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허허... 근데... 최 검사가 저
희 집안사람이긴 하지만 저랑은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가꼬... (뭔가 생각난 듯) 아 이쪽
으로 잠깐 와 보이소...
익현과 함께 사무실을 나가는 총무.
(손짓을 하며) 저기 저분이... 최 검사 삼촌입니다... 최 두
자 현자 대부님...
뻥튀기를 먹으며 바둑 훈수를 두고 있는 60대 후반의 대머리 영감, 최두현...

63. 실외. 부산 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 앞. 낮

익현의 차가 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집안사람인 최두현과 차에서 내리
는 익현, 걸음걸이가 불편해 노인지팡이를 짚고 있는 두현을 부축하고 검찰
청 안으로 들어간다.

64.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 부장검사실. 낮

익현과 두현이 여직원의 안내를 받고 검사실로 들어온다.

두 사람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는 최 검사.
최 검사
삼촌... 오셨습니까??
두현
어, 그래 우리 주동이... 우째 잘 지냈나? 바쁘제?? 그 여기
는 내가 얘기했던 우리 집안사람... 최익현 씨다...
최 검사
반갑습니다... 최주동입니다...
익현
(어른말투로) 어, 그래... 반갑네... 최 검사...
최 검사와 악수를 나누는 익현.
두현

익현씨는 니랑 촌수로 따지면 한 10촌정도 되고... 그니
깐... (잠시 생각하며) 느그 아버지, 우리 형의... 할아버지
의 9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익현씨다...
최 검사
(고개를 끄덕이며) 아... 예...
두현
할아버지 때는 다 한 동네에 모여 살아가꼬 자주 왔다갔다
하고... 윽수로 친했다꼬... 허허허...

65. 실내. 중부경찰서 / 일식집 교차. 낮

- 중부경찰서 서장실
형사1,2(#53에서 등장)가 원산폭격을 하고 있고 그 뒤로 강력반장 등을 비
롯한 간부들이 푹 고개를 숙인 채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잔뜩 인상을 쓴 채 통화를 하고 있는 강 서장.
강 서장
예... 예, 검사님... 그 저의 부하직원들이 뭘 잘 모르고 그
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을...
최 검사(Off Sound)
그 참 말귀 못 알아듣네... 다시 확인 할 게 뭐가 있다고...
- 익현의 일식집 VIP실
테이블 위에 한 상 가득 음식이 놓여있다.
무선 전화기로 중부서 서장과 통화를 하고 있는 최 검사.
익현은 두현과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최 검사
강 서장... 최익현씨랑 여사장 문제는 동업자끼리 사업적인
분쟁으로 봐야 되고... 최형배와 김판호 사건은 별게의 문
제니까 따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
해 못하겠어??
귀를 쫑긋 세우고 최 검사의 통화를 경청하는 익현.
최 검사

그렇지... 아 그라고 최형배는 단순 폭행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게 안 맞겠어요? 서
로 합의만 보면 되는 사안이잖아... 예, 예... 그렇지요... 잘
좀 처리해 주이소... 예, 예... 들어갑시다...
전화를 끊는 최 검사.
알아듣게 얘기 했으니깐에... 강 서장이 잘 처리할겁니다...
일이 해결됐다는 소식에 표정이 밝아지는 익현, 테이블 밑에서 금 두꺼비 세
트를 꺼내 최 검사에게 내민다. 이게 뭔가? 라는 눈빛을 보내는 최 검사.

익현
(능글맞게) 그... 두꺼비가 원래 은혜를 갚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허허허...
두현
그래 고놈 그거 잘 갚게 생깄네... 허허허...
껄껄대며 웃는 익현과 일행들.

66. 실내. 부산 중부 경찰서 / 유치장 복도. 밤

철컹~ 철문이 열리자 형배가 유치장에서 걸어 나와 익현에게 다가온다.
순간, 와락~ 형배를 끌어 앉는 익현.
익현
(등을 두드리며) ... 욕 봤다...
형배
(꾸벅 인사하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부님...
익현
그 동안 술 마이 코팠을긴데... 나가서 소주나 한 잔 하자...

67. 실외. 횟집. 밤

해안가 절벽에 위치한 횟집, 박장대소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익현과 형배, 둘
다 술에 취해 혀가 꼬여있다.
익현

(웃으며) 그래가... 회식이나 한번 하이소 하고 꽉 돈 백 찔
러 주니깐... 아이고... 선생님, 일전에는 제가 너무 큰 실례
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깜박 죽는기라... 내 웃기가...
형배
(웃으며) 하여튼 짜바리 새끼들은... (잠시 정적) 대부님...
전 원래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총 5번 징역을 살았는데... 그
기 다 내 앞에서 고추 내놓고 재롱 피던 놈들 때문입니다...
익현
... 그래, 맞다... 사람만큼 간사한 동물이 없지...
형배
아무튼 그래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믿어서 안 되는구나... (피식 웃으며) 대부님이 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현
(피식 웃으며) 쑥스럽구로 와그라노... 그런 건 꼭 말로 안
해도 그냥 서로 느끼는 거지...
형배와 건배를 하고는 쭉~ 술을 한 잔 들이키는 익현.
형배야... 나는 우리 둘이가 동지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몸이 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니는 (주먹을 쥐며) 이거...
나는 (머리를 가리키며) 이거... 그래만 되면 부산바닥은
다 내꺼... 아니 우리 꺼 라니깐... 우리 이번 기회에 진짜
제대로 한번 일 벌리 보자...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
고 있다...
형배
(귀를 쫑긋 세우고) ... 뭔 일을 하실라 그랍니까??

68. 실외. 부산 지방 검찰청 / 앞. 낮

검은색 승용차가 검찰청 앞으로 도착한다.
운전수가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는 최 검사 - 최 주동.
자막 '1990년 9월, 부산'

69.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부장검사실. 낮
똑똑~ 문을 두드리고는 부장검사실로 들어오는 범석.
사무실에는 부장검사와 최주동 검사가 앉아 있다.
부장검사
어... 조 검사... 일로 와서 인사드리라... 동부지청에 최주동
부장검사님... 6기 선배님이시다...
범석
안녕하십니까... 14기 조 범석 입니다...
꾸벅~ 정중하게 최 검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범석.
* * * * *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범석과 최 검사.
부장검사는 한 발 빠져 둘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
최 검사
조 검사... 최익현씨는 내가 집안사람이라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깡패들 몇 명하고 친한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건 조 검사가 깡패들하고 친하면 조 검사 니도 깡패라는
논리 아이가?
범석
죄송하지만 그 정도 사리판단은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최 검사
(피식 웃으며) 그래 사리판단을 할 줄 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나? 니가 지금 얘기하는 김판호는 최익현
씨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야, 공무
원... 당신 최형배 알지?
범석
조직폭력배 최형배 말씀이십니까?
최 검사
그래... 깡패 두목 최형배... 그 인간이 바로 최익현씨 집안
조카야... 그건 알고 있나?

범석
(놀라며) ... 그랬습니까??
최 검사
이봐라... 그런 정보력으로 무슨 수사를 한다고 그라노...
아니 니 말대로... 최익현이 깡패라고 치자고... 그라면...
상식적으로 붙어먹어도 최형배랑 붙어먹어야지... 왜 최형
배랑 적대 관계에 있는 김판호랑 붙어 먹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범석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익현이 김판호에게 허 사장을 감금, 폭행, 협박하도록 지
시한 사실은 명백합니다...
최 검사
마 니 지금 장난하나?? 니가 말하는 증거라는 게 결국엔
다 피해자 증언뿐이잖아... 실질적으로 지분을 갈취하고 폭
행을 한 김판호한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나?? 증거가 있
냐고??!! 누군 깡패 수사 안 해 본 줄 아나...
범석
현재 소재파악 중입니다... 곧 잡힐 겁니다...
최 검사

이 새끼가 끝까지 말대답이네... (버럭) 야이 새끼야... 그라
면 김판호를 먼저 잡은 다음에 소환을 하던 긴급구속을 하
던 했어야지... 어?? 무슨 이태리 마피아도 아이고... 조카가
깡패두목이면 삼촌도 깡패두목이 되는 기가??!! 어?!!
보다 못 해 끼어드는 부장검사.
부장검사
(눈치보며)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쭉 들어보이깐에
저희 조 검사가 명백하게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사건은 원칙대로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점심
이나 하러 가시죠... 허허허...
범석
(굳은 표정) ...

70.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강력부 취조실. 밤

취조실 책상에 마주보고 앉은 범석과 익현.
범석
(자술서를 보며) 최 사장... 내가 검사 밥을 좀 먹다보니 사
람 보는 눈이 좀 생겼는데... 최 사장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보나, 최 사장 집안 어른인 우리 선배님의 애기를 들어보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애...
굳어있는 얼굴이 풀어지는 익현.
당신과 김판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애기지? 맞어??
익현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범석
허 사장 폭행, 협박 건은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나
중에 말 바꾸지마...(한 숨 쉬며) 그래 오늘은 일단 집에
가... 집에 가는데... 딱 한 가지만 명심해 둬... 만에 하나 내
가 다시 조사해봐서 당신 애기 중에 딱 하나라도 사실이 아
닐 경우엔... 나 그땐 당신 사람대접 못해...
무서운 눈빛으로 익현을 노려보는 범석.

71.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강력부 검사실. 밤

쾅~ 거칠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범석, 양복 상의를 벗고 자리에 앉더
니 흥분한 듯 책상을 뒤적거린다.
범석
먼저 최형배, 최익현 관계에 대해서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봐... 정말 단순히 집안 친척인지... 같이 사업을 한 적은 없
는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하다 싶은 건 모조리 조사해...
단 팩트여야 돼... 팩트... 떠다니는 소문 말고...
팀원1
그럼... 허 사장... 감금, 협박 건은 어떻게 합니까?
범석

일단 그 건은 김판호가 잡힐 때 까진 기다려보자구... 최익
현이 집안조카인 최형배도 아니고 반대세력인 김판호랑 한
패라는 건 무래도 좀 오버센스거 같애...
서랍에서 위장약을 꺼내 빨아먹는 범석, 책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 - 요정 앞에
서 일본야쿠자 20여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익현의 모습 - 을 유심히 쳐다본다.

72. 실외. 부산 김해공항 / 활주로. 낮

JAL 소속의 여객기 한대가 제트 엔진 소리를 내며 활주로 위에 착륙한다.
자막 '1987년 2월, 부산'

73. 실외. 공항 고속도로. 낮

50여대의 승용차가 줄을 이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74. 실외. 요정 / 정원. 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호수정원이 있는 고급 요정, 익현과 형배를 비롯한
50여명의 한일 조직원들이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며 요정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뮤지션들이 영화 <대부>의 OST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껄껄 웃으며 좋아하는 익현, 형배 그리고 한일 조직원들.

75. 실내. 요정 / 연회실. 밤

대형 연회실 상석에 야쿠자 오야붕 가네야마와 익현, 형배가 나란히 앉아있
다. 나머지 50여명의 한일 조직원들, 모두들 가네야마의 건배제의를 기다리
는 듯 한 손에 잔을 들고 대기상태.
가네야먀
쿄다이노 유조 노 타메니... 간빠이...
<형제들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일동 '간빠이~' 외치며 잔을 들이킨다.
힘찬 박수를 치며 마무리 짓는 한일 조직원들.
형배
(가네야마에게) 데와, 테이시키니고쇼-카이사세떼이타다
키마스... 센지쯔, 모우시아게마시따가... 콘카이 호테루노

토우시니쯔이떼 세이후가와니 코네오오쯔케쿠다삿다 와따
쿠시노 아니키상데스.
<정식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이번 호텔 투자 관련해
서 정부쪽에 줄 놔주신 제 대부님입니다>
형배가 얘기하자 일본어로 통역하는 재일교포 조직원.
익현
(악수를 청하며) 하지메마시테... 와따시아 최익현 데스...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꾸벅~ 인사하며 정중하게 손을 내미는 가네야마.
가네야마
하지메마시테... 와따시아 가네야마 고사부로 데스... 테츠
다떼 쿠레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반갑습니다... 가네야마
고사부로 입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인사를 나누는 익현과 가네야마.
그때, 드르륵~ 여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익현에게 귓속말을 건넨다.
익현
(형배에게) 고 지금 옆방에 박 의원이랑 엄 실장 와 있다
거든... 퍼뜩 가가 이야기 마무리 지아뿌자...
익현의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형배.

76. 실내. 요정 / VIP실. 밤

드르륵~ 문이 열리자 익현, 형배, 가네야마가 방으로 들어온다.
박 의원
어 왔네... 다들 인사들 하이소... 요기 이분이 딱 보이 가네
야마 회장이고... (형배를 가리키며) 요는 그 우리 당 부산
지구 청년부장 맞고 있는 최 부장...
박 의원이 엄 실장에게 소개하자 가벼운 목례로 답하는 형배.
익현
마... 니 뭐하노... 나랏일 하시는 분인데 인사를 90도로 해
야지...

익현이 자신의 머리를 누르며 인사를 강요하자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 인사
하는 형배, 기분이 나쁜 듯 표정이 굳어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갸 높은 분들을 처음 뵈가 긴장했
나 봅니다... 허허허...
박 의원
(익현을 가리키며) 또 여기는 그 와 제가 일전에 얘기한 최
사장이라고... 이번일도 이번일이지만... 앞으로도 뒤에서 우
리 하는 일 많이 도와줄 양반입니다... (익현에게) 최 사
장... 인사드리라... 알제?? 여기 이분이 안기부 기조실장...
말이 끝나기도 전에 꾸벅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양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익현.
익현
뵙게 되서 정말 영광입니다... 최 익현 입니다...
* * * * *
준비해온 감사패를 꺼내는 엄 실장.
엄 실장
각하께서 주시는 감사팹니다... (글귀를 읽는다) 88 서울 올
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귀
하의 공을 높이 치하하여 감사패를 드립니다...
꾸벅~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패를 건네받는 가네야마.
짝짝짝~ 익현, 형배를 비롯한 일행들이 박수치며 축하한다.
(가네야마에게) 고 실제로 보니 신수가 훤하시네... 이번에
도와준 일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고래 좀 전해 주소...
통역하는 재일교포 조직원, 가네야마의 말을 전달한다.
교포 조직원
(살짝 어설픈 한국말) 부끄럽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엄 실장
(웃으며) 듣던 대로 진짜 애국자네, 애국자... 아 그리고 호
텔 파칭코건은 내가 각하한테 따로 얘기해놨으니깐 걱정들

하지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익현과 일행들.
- 요정 주차장
일본엔화가 가득 들어있는 사과박스 20개가 승용차 두 대에 나뉘어 실린다.

77. 실외. 요정 / 앞. 밤

요정 앞, 좁은 골목길에 30여대의 차가 꽉 막혀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모두들 답답해하며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고 있는데, 참다못
한 익현이 차에서 나와 고함을 지른다.
익현
(손짓하며) 야이 문디 자슥들아... 가만히 있으면 차가 빠
지나... 그 뒤로 다 차 빼... 마 차 빼라고!!! 오라이!!!

쭉~ 뒤로 늘어선 차량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익현, 그때 찰칵~ 하고 어디선가 사진이 찍힌다. 한쪽 귀퉁이에 숨어 사진을 찍고 있는 기자1, 계속해서 찰칵~ 찰칵~ 사진을 찍어댄다. 차를 빼라고 고함을 지르는 익현의 모습(#71에서 범석이 보던 흑백사진), 얼핏 보면 조폭 두목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 같기도 하다.

78. 실내. 88 나이트클럽. 밤

스테이지에 그룹 소방차의 짝퉁 소방관이 '그녀에게 전해주오'를 촌스러운 안무와 함께 열창하고 있다. 대부분의 손님들 '저거 소방차 맞나? 아인데' 하며 구시렁거리고 있는 가운데 뭔가 언짢은 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김 서방, 한쪽 테이블에 죽 때리고 앉아 깽판을 치고 있는 형배의 조직원들을 힐끔 쳐다본다.

김 서방
(웨이터에게) 야 저기 저 고기들은 또 뭐고?
웨이터
예, 저 박 부장님 동생들이라 카던데요...
'씨발새끼 진짜~'혼잣말로 욕을 하더니 어디론가 걸어가는 김 서방.
* * * * *

홀을 지나 한쪽 구석 VIP 룸 쪽으로 걸어가는 김서방, 쾅~ 거세게 문을 열고 룸 안으로 들어온다. 후배들과 함께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고 있던 창우, 뭔 일인가 싶어 김 서방을 쳐다본다.
김 서방
박 부장 일로 좀 나와 봐라... 얘기 좀 하자...
창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뭔 얘기요? 좀 있다 하입시다...
김 서방
(애써 화를 참으며) 박 부장님... 지금 좀 합시다...
어찌하지 못하고 김 서방을 따라 룸을 나가는 창우, 인상을 찌푸린다.

79. 실내. 88 나이트클럽 / 주방. 밤

김 서방, 창우가 차례로 주방으로 들어온다.
김 서방
마... 저게 소방차가... 어?? 저게 소방차냐고??
창우
아니 섭외가 안 되는데 우짭니까? 바빠 죽겠다 카는데...
김 서방
(어이없어 하며) 야이 새끼야... 니가 먼저 섭외 할 수 있다
안 했나... 친하다메?? 씨발 놈이 진짜...
창우
아 씨발 친하던 말던... 오기 싫다는데 뭐 우짜라고??
김 서방
(애써 화를 참으며) ... 니 섭외비 천오백은 우쨌노??
창우
점마들한테 다 줏지...
김 서방
마... 지금 그기 말이가??!! 나도 다 들은 말이 있다...

창우
뭐?? 뭔 말??
김 서방
이백 줏다메... 그라면 천 삼백 남은 거 아이가??!!

(잠시 정적) 반띵하자...
창우
뭐?? 뭐라노??
김 서방
반띵하자고... 반까이...
쾅~ 느닷없이 주방 싱크대를 손으로 내려치는 창우.
창우
아 씨발... 어디서 모기가 앵앵 거리노...
김 서방
마... 양심적으로 해라... 빨리 반 가온나...
창우
(버럭) 씨발놈아... 다 좃다 안하나??!!
순간, 창우의 멱살을 잡는 김 서방.
김 서방
(정색하며) 야 내 지금 장난하는 거 아이다... 반 가온나...
창우
(피식 웃으며) ... 아 돈 없다고... 씨발놈아...
창우를 한 대 치려고 하는 김 서방, 화를 삼키며 멱살을 푼다.
김 서방
아 이새끼 완전 갈지마오네... 확 그냥 돌려차기로... 마...
처 맞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반 가온나... 알았나??
뒤돌아서 주방을 나가는 김 서방, 복도를 지나 홀로 들어가려 하는데...
퍽~ 갑자기 뒤에서 창우가 맥주병 두개로 머리통을 연달아 내려친다.

아무 비명소리도 없이 철퍼덕 바닥에 쓰러지는 김 서방.
창우
씨발 좆도 아인 새끼가... (발로 툭툭 차며) 야 니 아까 뭐
라했노?? 어??!! 다시 함 씨부리봐라... 확 씨발 아가리에
지랄탄을 쑤셔 넣어 뿔라...
머리를 감싸고 옅은 신음소리를 내는 김 서방.

80. 실내. 익현의 집 / 안방. 밤

털컥~ 권총박스가 열리면 그 안에 리볼버 38구경이 들어 있다.
잠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걸터앉아 38구경을 요리조리 돌려보는 익현.
지영
(놀라며) 이거 진짜 총입니까? 어디서 났어요??
익현
선물 받았다... 일본 놈한테... (혀를 차며) 야쿠자 아들은
다 하나씩 차고 다닌다카는데... 우리나라는 뭐고??!! 멀었
어, 멀었어...
장난치 듯 총을 지영에게 겨냥하는 익현.
지영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며) 아 지금 뭐 합니까??!!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는 익현, 그때~ 주한이 무선 전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놀라며 권총을 숨긴다.
주한
(멀뚱히) 아부지... 전화 왔어요...
주한에게 수화기를 건네받는 익현.

81. 실내. 88 나이트클럽. 밤

급히 나이트클럽 사무실로 들어가는 익현.

82. 실내. 88 나이트클럽 / 사무실. 밤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익현, 머리에 붕대를 감은 김 서방에게 다가간다.
익현
(머리를 만지며) 함 보자... 찢어졌나??
익현을 보자 참았던 서러움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흘리는 김 서방.
김 서방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행님... 흑흑... 씨발놈.... 내가 지 대
우를 얼마나 잘해줏노... 골프장도 두 번이나 데꼬 갔구만...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서럽게 울어대는 김 서방.
익현
박 부장 어딨노?

83. 실내. 88 나이트클럽 / VIP 룸. 밤

쾅~ 익현이 문을 열고 창우에게 다가단다.
슥~ 한번 익현을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는 창우.
익현
... 마 니 돌았나?? 인사안하나??
마지 못 해 일어나 꾸벅 익현에게 인사하는 창우. 순간, 짝~ 익현이 창우의
뺨을 갈긴다. 기분 나쁜 듯 크게 쉼 호흡을 내쉬는 창우.
익현
이 씨발놈이... 처 돌았나...
흥분한 듯 사정없이 창우의 뺨을 갈기는 익현, 얼음 통으로 창우의 머리를
내려친다.
마 니가 잘했나?? 어?? 씨발놈이 어디서 눈가리를... 아 나
이 씨발놈이... 어디서 행님한테...

84. 실내. 88나이트클럽 / 주류창고. 밤

퍽~퍽~ 엎드려뻗쳐 하고 있는 창우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가격하는 익현.

창우
(셈을 하며) 68... (퍽) 69... (퍽) 70...
철퍼덕~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창우.
익현 역시 힘이 드는 듯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쉰다.
익현
일라라... 니는 근본이 글러먹은 인간이다... 빨리 일라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창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익현의 손목을 잡는다.
창우
... 그만 하이소, 행님... 예??!!
창우가 반항하자 안주머니에서 38구경을 꺼내는 익현, 권총을 창우에게 겨
냥한다.
익현
... 엎드리라... 확 대갈통에 싸뿌기 전에...
난대 없는 권총의 등장에 뒷걸음질 치는 창우, 하지만 이내 작정한 듯 익현
을 노려본다. 그때, 소식을 듣고 조직원 두 명과 함께 주류창고로 들어오는
형배, 저벅저벅 아무 말 없이 익현에게 다가간다. 급히 총을 숨기는 익현.
(약간 긴장하여) 어 형배 왔나? 이 자슥이 오늘 우쨌는지...
익현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손으로 혁대를 풀어 창우를 내려치는 형배,
아아악~ 비명을 지르며 울먹이는 창우를 가차 없이 내려친다.

85. 실내. 88 나이트클럽 / 사무실. 밤

형배에게 위스키 한 잔을 따라주는 익현.
익현
하루가 멀다 하고... 선배에 후배에... 뭐 심지어는 징역살

이 하는 아들 뒤 봐주는 교도관까지 접대해야 되니... 이거
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이가...
기분이 나쁜 듯 위스키를 원 샷 하는 형배.
술도 그냥 기본 양주 무면 될 거를... 어차피 폭탄 마실 거

면서 꼭 무슨 조니워커 블루니 발렌타인 30년이니... 양주
맛이나...
형배
예... 뭔 말인지 알겠으니깐... 일절만 합시다...
순간 겁먹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익현.
그라고 앞으로 저희 식구들 혼낼 일 있으시면 직접하지마시
고 저한테 얘기하이소... 괜히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깐...
익현에게 술을 따르는 형배.
익현
(겁먹어) 어, 어... 그래... 그건 그라자...

86. 실내외. 관광호텔 / 파칭코 업소. 낮.

'축 개업'대형 현수막과 태극기가 걸려 있는 파칭코 영업장, 입구엔 각 종 인
사들의 화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고위급 인사들로 보이는 하객들과
직원들로 붐빈다. 면장갑을 끼고 테이프 앞에 일렬로 서 있는 각 계 각층의
사람들 - 군 장성, 경찰 간부, 박 의원, 여사장 등 - 그 중 말끔한 정장차림의
익현과 형배의 모습도 보인다.
사회자
자... 그러면 이제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커팅과 동시에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하나, 둘, 셋...
커팅과 동시에 박수소리 들리고 군악대가 행진곡 연주를 시작한다. 형배와
악수를 나누는 익현, 곧이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여사장과 악수를 나눈다.

87. 실내. 호텔 / 객실. 밤

목욕가운을 입은 익현이 다이아 귀걸이를 침대에 누워 있는 여사장에게 건
넨다.
여사장
(화들짝 놀라며) 아~~~ 이게 뭐에요?? 너무 이쁘다...
익현

맘에 드나?? 요새 유행이라 카든데...
여사장
너무 이쁘다... 최 사장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요새
노 나셨다더니... 진짜 노 났나보네...
익현
노가 나기는 뭐가 노가 나... 파칭코 한 두개로 노가 나나...
저기 서울에 정덕진이 맹키는 한 스무개는 해야지...
여사장
(웃으며) 하이튼 사람 욕심이란 끝이 없어... 끝이...
익현
(담배 한 대를 물며)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라고... 1등이 되기 전까지는 절
대 멈춰서 안 돼... 왠지 아나?
익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사장.
잘 들어봐라... 내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
였거든... 땅도 엄청 많고... 완전 살아있었지... 근데 우리 아

버지가 자유당 시절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가... 전 집안 재산 다 말아묵고... 화병으로 돌아가싰
다고... 그 때 우리 아버지가 선거에서 2등 했거든... 2등하
면 뭐하노... 2등하면 아무것도 아닌그라, 남는 게 없어...
담배 연기를 깊게 내뿜는 익현.
결국 우리아빠가 2등해가 내가 지금 이 더러운 바닥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이겠나...
여사장
(웃으며) 그라면 최 사장님은 지금 몇 등인데요?
익현
내? (잠시 생각하다) 내야 뭐 이 바닥에선 부산에서 1등이
지... 전국 등수로는 잘 모르겠고...
여사장
형배씨는요?? 형배씨가 1등 아니에요??

익현
(정색하며) 뭔 소리고... 형배는 내 밑이지... 금마야 밑에
아들이나 관리하지... 하는 게 뭐가 있노... 내말 한 마디면
깜빡 죽는 놈인데...
여사장
아 그라면 최 사장님이 형배씨 위에요?
익현
뭐 꼭 그렇다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볼 수도 있지... 실질적인 비즈니스는 내가 다 하니깐...

88. 실내외. 형배의 사무실 앞 / 익현의 차 안. 낮

20여명의 시위자들이 무장한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고 있다.
차 안에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연행 관경을 보고 있는 익현.
자막 '1987년 6월, 부산'

89. 실내외. 형배의 사무실 앞 / 식당 안. 낮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려하는 익현, 1층 식당에 형배 조직원 50여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익현을 보고는 다가오는
창우.
익현
뭐고 와이래 떼거지로 몰려 있노??
창우
형님 모르십니까 지금 판호 쪽 아들이 저희 큰형님하고 형
님 작업한다는 정보가 들어와가... 우리 식구들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
익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판호가 와 갑자기 작업을 한단
말이고...
창우
그 아무래도 이번에 파칭코 때문에 안그라겠습니까...
지 구역에 있는 호텔인데... 영업은 우리가 하니깐...

익현
미친 자슥이 그걸 우리가 알아서 하나... 안기부에서 정해
주는 긴데...
창우
뭐 아무튼 그래가 앉아서 작업 당할 바에는 우리가 먼저

해뿌는게 낫지 않겠나 해가 이래 다 모이 있습니다...
익현
그래, 일단 알았다... 알았으니깐 일단 아들 다 철수시키
라... 뭐고 이게... 요새 다섯 명만 모이도 다 잡아가는 판국
인데...
난감해하는 창우.
뭐 하노 임마... 철수시키라니깐...
창우
큰 행님한테 물어보고 철수하던지 말던지 하겠습니다...
순간 짝~ 창우의 뺨을 때리는 익현.
익현
이 개문디 자슥이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이 새끼야... 형배
지시만 지시고... 내 지시는 지시도 아이가... (말을 줄이며)
... 개자슥이... 형배 위에 있나?
익현이 식당을 나가 건물 위로 올라가자 퉤~ 바닥에 침을 뱉는 창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조직원들을 향해 고함친다.
창우
(버럭) 뭘 보노 씨발 자슥들아... 밥 처무라!!!!

90. 실내. 형배의 사무실 / 형배 방. 낮

익현과 형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익현
야이 자슥아... 인자 막 영업 시작했는데 또 일 그리 칠라고
그라나... 뒷수습은 누가 할 건데?

형배
대부님... 건달은 싸워야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익현
마 그기 언제 적 소리고... 니 요새 나라가 우째 돌아가는지
모르나?? 쓸데없는 소리하지마라, 내가 판호 만나가 얘기
함 들어볼게...
형배
(굳은 표정으로) 대부님... 건달들끼리 일이니깐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익현
야... 니 무슨 얘기를 그래 섭하게 하노... 니랑 내랑 한 배
를 탄 거 아니었나? 그라면 지금까지 내가 일보고 돌아 댕
긴건 다 뭔데??!!! 내는 뭐냐고??!!
순간, 책상위에 있던 명패를 익현 쪽으로 집어 던지는 형배.
와장창~ 익현의 옆에 있던 전신거울이 깨진다.
익현
(약간 겁먹어) 마...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형배
그라면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대부님은 스스로를 뭐
라고 생각 하시는데예??!! 함 물어 보입시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익현, 무심코 깨진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쳐다
본다.

91. 실내. 호텔 커피숍. 낮

호텔 커피숍으로 판호가 들어온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익현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는 판호.
* * * * *

판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익현.
판호
와 일전에 건달들끼리 문제는 건달들끼리 해결하는 게 옳

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익현
그래 그기 맞지... 근데 지금은 시국이 니 구역 내 구역 하면
서 싸울 때가 아이다... 내 조만간 서로 화해할 자리를 만들
테니깐...
판호
(말을 자르며) 아 마 됐습니다... 괜히 끼지 마이소... 내사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 카지만... 최
사장님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짤린 우리 아들은 다릅
니데이... 금마들은 무식해가꼬 시국이 뭔 뜻인지도 몰라...
익현
그러니깐... 내가 얘기 한 다이가... 이번 일만 일이가... 담
에 관광호텔 하나 생기면 그때는 내가 직접 김 사장 안기
부에 줄 대줄게...
익현의 얘기에 눈빛이 달라지는 판호.
관광호텔이 이거 하나 뿌이가... 이제 규제도 풀렸겠다...
몇 년 안으로 부산시내에 파칭코가 넘쳐난다... 그래 되면
그때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니깐... 인자는 남포동
이니 완욜동이니 구역 싸움 할 필요가 없다...
익현 쪽으로 당겨 앉는 판호.
판호
(조심스레) 최 사장님... 그라면... 그라지 말고 이번 기회
에 저랑 한번 일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최 사장님 인맥
이랑 제 실력이면... 아 진짜 완전 살아 있는데...
익현
야 이 사람아... 아들도 아이고... 니 편 내 편이 어딨노...
판호
아니... 막말로... 최 사장님이 어디 호텔이든... 저한테 파칭
코 영업 맞기면 형배 금마 성격에 가만있겠습니까?
익현
(목청 높이며) 가만 안 있으면... 가만 안 있으면 지가 우짤

낀데? 누구 덕에 지가 밥 먹고 사는데... 형배 금마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하자면 지가 해야지... 우짤낀데??!!
판호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 그라면... 최 사장님... 오늘 마
이래 만난 것도 쉽지 않은데... 저랑 둘이 소주나 한 잔 하
입시다...
익현
... (잠시 정적) 담에 하자, 다음에... 오늘 좀 바쁘다...
딴청을 피우는 익현, 그런 익현을 노려보는 판호.

92. 실외. 시내거리. 낮

거리를 가득 매운 10,000여명의 시위대들을 향해 최루탄을 투척하고 있는
경찰들, 시위대들도 지지 않고 화염병을 던지며 맞대응한다.
자막 ‘1987년 6월 10일, 부산’

93. 실내. 이발소. 밤

TV 뉴스에 '민주정의당 전당대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확정'등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발의자에 앉아 이발사에게 면도를 받고 있는 형배,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선잠을 자고 있다. 그때, 객실 키를 들고 이발소 안으로 들어오는 창우.
형배
(눈을 뜨며) 우째 됐노? 아직도 데모하고 있나?
창우
예... 말도 마십시오... 지금 서면 로타리부터 자갈치 시장
까지 한 십만 명은 기 나온 것 같습니다...
형배
... 방은 어데 잡았노??
창우
(키를 건네며) 예, 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크라운호텔
706홉니다, 행님...

형배
니는 인자 아들 데꼬 숙소 들어가라... 내 알아서 드갈게...
창우
행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형배
괘안타, 드가라... 어차피 차도 못 움직인 다이가...
꾸벅 인사하고는 이발소를 나가는 창우.

94. 실외. 시내거리. 밤

'호원 철폐, 독재 타도!'구호를 외치며 도망가는 몇 몇 시위대들 사이로 절룩거리며 호텔 쪽으로 걸어가는 형배의 모습이 보인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듯 본능적으로 슥 뒤를 한 번 돌아보는 형배, 보면 멀찌감치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20 후반의 한 사내가 시선을 돌린다. 위기를 느끼고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형배, 하지만 하필 그때 아픈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빠른 걸음으로 뒤 쫓아와 형배와의 거리를 좁히는 20대 남1, 상의 안주머니에서 신문지로 휘감은 사시미를 꺼내려한다. 순간, 잽싸게 길 한쪽에 있는 파출소로 들어가는 형배. 당황하는 20대 남1.

95. 실내외. 파출소 / 파출소 앞. 밤

경찰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좁은 파출소로 형배가 들어온다.
갑작스런 형배에 등장에 당황하는 경찰관들.
형배
(호흡을 고르며) ... 아 나 씨발... 좆같네...
그때, 와~ 하는 함성소리와 동시에 쨍그랑~ 파출소 유리창이 깨지며 최루탄 세 개가 투척된다. 순식간에 파출소 내부를 뒤덮는 최루탄 연기에 콜록 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형배와 경찰관들, 눈물에 콧물까지 정신이 없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20대 남자1, 푹~ 하고는 형배의 복부에 사시미를 쑤셔 넣고는 가차 없이 사시미를 쥔 손을 90도로 꺾어버린다. 뿌직~ 하는 소리와 동시에 퍽~ 남자1의 면상을 주먹으로 강타하는 형배, 남자1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다. 이를 악문 채 비틀거리며 파출소를 빠져 나가는 형배, 이번엔 파출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남자2의 사시미에 허벅지를 관통 당한다. 아악~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콰당~ 순찰 오토바이를 뒤집으며 쓰러지는 형배, 재빨리 도망치는 남자1,2.

96. 실내. 병원 / 복도. 밤

병실 앞, 형배의 조직원들 10여명이 진을 치고 있다.
급히 달려와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는 익현.

97. 실내. 병원 / 입원실. 밤

형배가 복부와 허벅지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다. 문을 열고 입원실 안으로 들어오는 익현, 침대 옆에 서있는 창우를 쳐다보며,
익현
뭐 우째 된 기고?? 괜찮나??
형배
(작은 목소리로) 별 일 아닙니다...
익현
뭐가 별일이 아니고... 많이 다쳤나? 의사가 뭐라데?
형배
... 대부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이소...
오자마자 자리를 비켜달라는 형배의 얘기와 자신을 바라보는 창우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익현.
익현
어, 그래... 일단 좀 쉬라... 내 이따 다시 올게...
병실을 나가는 익현.
창우
제 동기 상문이한테 들은 얘깁니다... 행님 몸도 불편하신
데 제 선에서 알아서 단도리 치겠습니다...
형배
(아무 대답 없이 눈을 감는다) ...

98. 실내외. 시외도로 / 익현의 차 안. 낮

인적이 드문 국도 위를 익현의 차가 달리고 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던 익현, 보조석에 앉아 있는 창우에게,
익현
... 어데까지 가노?? 아직 멀었나??
창우
(익현을 힐끔 쳐다보며) ... 인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익현
... 형배 금마도 참... 뭐 한다고 이 먼데까지 와가 요양을
한다카노... 바빠 죽겠구만...
룸 미러로 익현을 쳐다보는 창우, 익현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99. 실외. 낚시터. 낮

낚시터에 익현의 차가 멈춰 선다. 창우가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는 익현, 미리 대기하고 있는 형배 조직원들에게 다가간다.
익현
... 요 낚시터 아이가?? 형배 어딨노??
힐끔 주위를 둘러보는 익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조직원6을 발견한다.
(과장된 어투로) 날씨 좋네... 짝대기 한 번 던지야 되는데...
순간, 후다닥~ 도망가는 익현, 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무언가에 걸려 땅바닥에 고꾸라진다. 퍽~ 아무런 말도 없이 야구방망이로 익현을 후려갈기는 창우, 바닥에 쓰러진 익현을 사정없이 내려친다. 스포츠 백에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삽 등을 꺼내어 구타에 가담하는 형배 조직원들.

100. 실외. 낚시터 뒤 야산. 낮

온몸에 시퍼렇게 멍든 익현이 팬티만 입은 채 조직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눈을 가늘게 뜬 채 옅은 신음소리를 내는 익현.
익현
(들릴 듯 말 듯)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창우
아 이 양반 귀엽네... 판호한테 딱 달라 붙어가... 같이 일하

자고 꼬리 칠 때는 언제고... 몇 대 맞으니깐 이제 우리가
무섭나??
3미터 정도의 높이에 구덩이에 익현을 던지는 조직원들, 드르륵~ 익현이 구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삽으로 흙을 한 움큼 떠서 익현의 얼굴에 몇 차례 뿌리는 창우와 조직원들.
아 이제 나가 들어가 삽질도 힘드네...
몇 번 더 삽으로 흙을 퍼더니 조직원6에게 삽을 넘겨주는 창우, 벨트를 풀더니 지퍼를 내리고 익현을 향해 오줌을 싸기 시작한다.
(몸을 부르르 떨며) 아 시원하다...(지퍼를 채우며 조직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가자... 가자...
낄낄낄~ 웃으며 자리를 뜨는 창우와 조직원들.

101. 실외. 낚시터 앞 매점. 낮

팬티 차림의 익현이 비틀거리며 산에서 내려와 낚시터 앞 매점으로 걸어온다.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낚시꾼들의 시선을 피해 매점 화장실로 들어가는 익현.

102. 실내. 매점 화장실. 낮

세수를 하고 있는 익현, 분노와 서러움에 복받쳐 울먹이기 시작한다. 머리에 충격이 있는 듯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는 익현, 철퍼덕~ 땅바닥에 쓰러진다.

103. 실내. 병원 / 입원실. 밤

암전 위로 익현의 신음소리와 가족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온다.
가족들(V.O)
(자영, 유미, 주한) 아부지... 아부지... (지영) 여보... 여보... 주한이 아부지... 뜬다... 눈 떠요...
인공호흡기를 입에 문 채 옅은 신음을 내뱉는 익현, 천천히 눈을 뜬다.
익현이 눈을 뜨자 울먹이며 기뻐하는 가족들.
* * * * *

지영이 왼팔에 깁스를 한 익현에게 미음을 먹여주고 있다.
안쓰러운 표정으로 익현을 바라보는 주한, 유미, 자영.
익현
(들릴 듯 말 듯) 아들부터 집에 보내라...
자영
예, 알았어요... 일단 이거부터 좀 드이소...
익현
보내라 빨리... 내일 학교가야지... (기침하며) 쿨럭쿨럭...
지영
(한 숨을 쉰다) ... 예... 나가자... 택시 잡아 줄게...
지영이 주한, 유미, 자영을 데리고 병실을 나가자 초점 없는 눈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익현.

104. 실내. 기사식당. 밤

익현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 식당 입구에 서 있는 조직원2명을 지나 밥을 먹고 있는 형배에게 다가가는 익현.
익현
... 앉아도 되나?
형배가 아무 대답 없이 밥만 먹자 맞은편에 선채로 얘기를 시작하는 익현.
형배야... 니가 내랑 판호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

는지 모르겠는데... 니가 알고 얘기는 절대 사실이 아이다...
힐끔 익현을 한 번 쳐다보더니 다시 밥을 먹는 형배.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니가 내 어떤 부분이 맘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안하다... 근데... 뭐 때
문인지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고칠게...
계속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형배.
형배야... 그라면... 밑에 아들한테라도 잘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나? (목이 메어) ... 아부지가 되가꼬 새끼들 호로자
슥 만들 수는 없다이가...
형배
그 부분은... 아들한테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둣습니다... 칼
은 절대 주지 마라고...
익현
(눈에 눈물이 고여) ... 고맙다 ... (잠시정적) 니 오늘 바쁘
나? ... 우째 내랑 소주 한 잔 안 할래??
역시나 아무 대답 없는 형배.
(한 숨 쉬며) 알았다, 몸조리 잘 해라... 내 갈게...
형배
대부님...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 쪽 세계에 발 들이지
마이소... 여기저기 깡패 두목이다 뭐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 댕기지 마시고...

105. 실내. 익현의 집 / 안방 서재. 낮

탈칵~ 007가방이 열리면 현금과 수표가 보인다.
창우
파칭코 지분이랑 보스나이트 지분 정리한 겁니다... 현금으
로 1억... 백만원 권 수표로 2억 입니다...
익현
이기 다가? 나이트 지분만 해도 5억은...
한 숨을 쉬며 말을 줄이는 익현, 창우가 지분 매입 계약서를 들이밀자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넘겨 가며 지장을 찍기 시작한다. 그때, 수업을 마치고 집
으로 들어오는 익현의 아들, 주한.
주한
(꾸벅 창우에게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아들의 등장으로 당황하는 익현.
익현

... 빨리 방에 드가가 공부해라...
예~ 짧게 대답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주한.
창우
아드님 똘똘하게 생깄네예... 아 그리고 이거는 사골 뼌
데... 곧 명절이라고 큰 행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골 뼈를 건네는 창우.
몸도 많이 다치셨는데... 당분간 집에서 쉬시면서 이거나
푹 고아가 드시랍니다...
힐끔 창우를 노려보는 익현.
익현
... 내 입 무겁다... 걱정하지마라...
도장을 다 찍은 듯 계약서를 창우에게 건네는 익현, 일이 다 끝났는데도 창
우가 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의아해하며 창우를 쳐다본다.
익현

와?? 아직 할 말 더 있드나?
창우
행님... 이제 곧 추석인데... 동생 고향 집에 굴비세트라도
하나 사가게... 용돈 좀 챙겨 주이소...
어찌하지 못하고 백만원 권 수표 한 장을 지갑에서 꺼내어 창우에게 건네는
익현, 심한 굴욕감을 느낀다.

106. 실내. 룸살롱. 밤

술에 만취한 익현, 벌컥벌컥 위스키를 물처럼 들이킨다.
옆자리에 앉아 안쓰러운 눈빛으로 익현을 쳐다보고 있는 김 서방.
익현
개노무새끼... 사창가에서 삥이나 뜯던 놈, 삼시 세끼 밥 챙
기 묵게 해줏드만... 개새끼가...
김 서방

행님... 조금만 천천히 드십시오...
익현
이기 다 내가 오리지날이 아니라 그런기다... 오리지날
이... 씨발 내가 오리지날이었어 봐라... 지가 내한테 이랄
수 있겠나?? 결국엔 내 쪼대로 할 수 있는 직계부대가 없
으니깐에 나를 이래 좆으로 본 거 아이겠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는 익현, 총을 만지작거리며,
(김 서방에게) 니 어데 총알 구할 때 없나??
김 서방
(눈치를 보다) 함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룸으로 들어오는 판호.
판호
오랜만입니다... 최 사장님...
익현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 김 사장 왔나... 와 이래 늦었노...
술기운을 빌어 와락~ 판호를 껴안은 익현.
* * * * *
판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익현.
판호
최 사장님...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위에 오다 없
이는 할 수 없는 입니다...
익현
맞제?? ... 나도 그래 생각한다, 김 사장...
판호
형배 금마가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지 밖에 몰라...
한 숨을 푹 쉬는 익현, 쭉~ 위스키를 한 잔 들이킨다.

아 근데 최 사장님이랑 내랑 안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도 말이 이래 어색합니까... 지금부터는 편하게 제 이름 부
르이소... 저도 그냥 행님이라 부를게예...
익현에게 잔을 따르는 판호.
익현
(잔을 받으며) 그래, 그라자... 판호야...

107.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강력부 검사실. 낮

테이블 위, 녹음기가 재생되고 있다.

자막 '1990년 9월, 부산'
호텔 사장1(V.O)
그래 최익현이가 김판호랑 짝짝꿍이 되고 나니깐... 최익현
이가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가꼬 동방호텔에 자이
언트 호텔... 뭐 한 파칭코 5개를 그냥 밀어줬다고... 김판
호한테... 허 삼식이 그거는 그것도 모르고... 파칭코 허가
내준다니까 좋다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범석, 허 사장 그리고 팀원들.
범석
(정지 버튼을 누르며) 이 새끼 이거 골 때리는 새끼구만...
자... 이제 말 되지?? 김판호 잡아와서 진술만 받으면 되는
거 아냐??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습니다' 일제히 대답하는 팀원들.
자 그럼 다들 각자 일들 잘 보시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
고 이달 안으로 최익현 건은 마무리 하는 걸로...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팀원들, 눈치를 살피는 팀원4.
해산... (남아있는 허 사장에게) 허 사장님... 재밌죠?? 재밌
지 않아요? 난 이럴 때마다 왜 이렇게 흥분되는지 몰라...

108. 실내. 교회 안. 낮

예배 중인 교회 안,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
며 기도하는 신자들, 그 중 익현과 지영의 모습도 보인다. 눈물을 흘리며 절
실하게 기도하는 익현.

109. 실내외. 교회 안 / 교회 앞마당. 낮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로 북적거리는 대형 교회 앞마당, 익현이 다른 신
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물에서 걸어 나온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더니 마치 자연스럽게 마주친 것처럼 한 변호사 부부에게 접근하는 익현.
익현
아이고... 행님... 오늘은 나오셨네요...
한 변호사
어, 최 사장... (옆에 와이프를 가리키며) 오늘 하도 뭐라
그래가 자다가 불리 나왔다이가...
지영
변호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너무 이쁘시다...
한 변호사
(웃으며) 아 그래예?? 진짜 좀 괘안나?? 허허...
익현
김 집사님 의상도 오늘 장난 아니시다... 색깔이 진짜 와...
켁켁... 아 죽겠다...
사래가 걸린 듯 연신 기침을 해대는 익현.

110. 실내. 중국집. 밤

낡고 허름한 동네 중국집, 익현과 판호가 고량주를 마시고 있다.
익현
여기저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깐... 눈치는 쪼매 보겠지만 수
사는 계속 할 생각 같더라고... 당분간은 잘 좀 숨어있어라...
판호
꼴통 중에 꼴통이라가... 쩐도 안통하고... 가시나 나오는
술집은 쳐다도 안 본다 카데요...

익현

확실히 다른 검사들하고는 뭔가 다르데...
판호
해방이후 최고의 악질검사라 안 캅니까... 전라도 아들도
다 임마 때메 옥살이 하고 있고... (한 숨 쉬며) 이러다가
우리도 다 달리 가는 거 아닙니까??
익현
(웃으며) 야이 자슥아... 내가 누구고? 어? (대답이 없자)
내가 누구냐고??!!
판호
행님요? (대놓고 얘기하기가 민망한 듯 웃으며) 로비의 신
아닙니까... 로비의 신, 로비의 아버지...
익현
니 내 스타일 알제? 어? 내가 누구고?? 어떤 놈이든 딱 한
번만 만나면 그 담부터는 바로 고추부터 잡는 사이로 만든
다 아이가... (흥분하며) 대통령도 내 앞에 갔다가 앉히만
놔봐라... 바로 고추잡고 행님, 동생 하지...
판호
(웃으며) 아 행님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갑지예??
고량주를 쭉~ 한 잔 들이키는 익현.
익현
(전화번호부를 꺼내며) 니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바로 10
억짜리 전화번호부다... 10억짜리... 금마는 내 절대 못 잡어
넣는다... 함 바바라...

111. 실외. 요정 / 정원. 밤 (#75와 동일)

부슬 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범석이 요정 종업원의 안내를 받으며 술집으
로 들어온다.

112. 실내. 요정 / 복도. 밤

드르륵~ 여종업원이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는 범석.

113. 실내. 요정 / 방. 밤

범석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는 익현과 한 변호사가 자리에
서 일어난다.
한 변호사
어 조 검사 왔나...
범석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변호사.
범석
(악수를 하며) 예, 형님... 오랜만...
순간, 익현을 보고는 표정이 바뀌는 범석.
한 변호사
아 조 검사... 인사해라... 니도 알제? 최 사장님...
익현
(웃으며)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범석에게 악수를 청하는 익현.
범석
(굳은 표정으로) 예, 오랜만이네요...
뭔가 둘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심상치 않자 중재하는 한 변호사.
한 변호사
내 안 그래도... 여기 최 사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둘이
오해가 좀 있었다메... 술 한 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앉아바라...

범석
(굳은 표정으로) 아무래도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
니다... 담에 따로 뵙죠... 변호사님...
꾸벅~ 한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가는 범석.
114. 실내. 요정 / 복도. 밤

드르륵~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범석, 잔뜩 화가 난 표정이다.
뒤쫓아 나와 범석을 붙잡는 한 변호사.
한 변호사
야 니 와 이라노, 임마...
범석
아니, 형... 이건 아니잖아... 저 새끼 내 사건 피의자야, 피
의자... 뉴스 못 봤어??!!
한 변호사
그래, 임마... 나도 다 들었다... 뭔가 니가 오해 하는 게 있
는 거 같아가 풀어줄라고 그라는 거 아이가...
범석
(답답해하며) 오해 같은 거 없어...
한 변호사
야 솔직히 니가 좀 오바했데... 저기 최 사장 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이다...
범석
(어이없는 듯 웃으며) 그래, 알겠는데... 술자리는 담에 둘
이서 하자... 나갈게...
한 변호사
(화내며) 야... 니 진짜 햄한테 이랄 수 있나?? 어?? 니 임
마 문제 일으킬 때마다 선배들 찾아댕기면서 똥 닦아준 사
람이 누구고?? 어??!! 내가 다 일일이 찾아 댕기면서 범석
이 그런 놈 아이다, 아 괘안타... 기억 안나나??!!
고민하는 범석.
아 진짜 이래 속 좁은 놈인지 꿈에도 몰랐네... 니 진짜 그
릇이 이거 뿌이 안되나?? 이래가 어디 나중에 검찰총장 하
겠나??!! 갈라면 가라 자슥아!!! 평생 빵빵이나 돌기다...
범석
알았어, 알았어... 한 잔 하자... 한 잔 해... 됐지?

범석에게 어깨동무하는 한 변호사.
한 변호사
(웃으며) 새끼... 우째 잘 지냈나?? 재수씨는??
115. 실내. 요정 / 방. 밤
한복을 입은 여종업원이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술을 마시며 즐겁게 대
화하고 있는 익현, 범석, 한 변호사... 다들 적당히 술에 취해 얼굴이 붉다.
범석에게 술을 한 잔 따르는 익현.
익현
제가 그때 못 드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
데... 이래 또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쭉~ 술을 한 잔 들이키는 범석, 익현에게 잔을 건넨다.
범석
(술을 따르며) 그러게요... 인연은 인연이네요...
익현

그 검사님도 이제 다 아신 다니깐 드리는 말씀인데... 형배
금마가 어릴 때부터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다 보니깐... 제
가 집안 어른으로서 몇 번 도움 아닌 도움을 줬는데... 아마
그게 좀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았나...
범석
(웃으며)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얼굴이 화색이 도는 익현.
익현
그라고... 허 삼식 사장을 폭행했다는 김판혼가 뭔가 하는
사람은... 김판호 맞죠?? 저는 그 사람 얘기로만 들었지 일
면식도 없습니다... 키가 우수로 크다든데...
범석
(말을 자르며) 아 저도 그 얘긴 다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잔을 내민다) 최 사장님... 잔 비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좋아 보이자 흐뭇한 미소를 짓는 한 변호사.

익현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범석에게 술을 따르는 익현.
저기 죄송한데...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배를 잡으
며) 터질 것 같아가...
용무가 급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드르륵~ 문을 열고 방을 나가는 익현.

116. 실내. 요정 / 복도. 밤

익현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간다.
복도를 지나가다 요정 사장을 만나는 익현.
요정사장
아이고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미리 전화를 주시지...
익현
그래... 고 사장... 오랜만이네... 있다 자리 함 들리라...
용무가 급한 듯 화장실로 달려가는 익현.

117. 실내. 요정 / 방. 밤

방으로 들어와 형배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요정사장.
형배
(놀라는 표정) !!!!!!!!!!!!!!!

118. 실내. 요정 / 화장실. 밤

휘파람을 불며 소변을 보고 있는 익현, 용무가 끝난 듯 몸을 부르르 한 번 떨
더니 물을 내리고 바지를 챙겨 입는다. 그때, 탈칵~ 문 열리는 소리에 반사
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익현, 보면 범석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익현
... 아이고 검사님도 물 빼러 오셨습니까?

능청맞게 범석의 어깨를 주무르는 익현.
어깨 많이 뭉치셨네요... 스트레스 많으시죠??? 딱딱하네...
순간, 퍽~ 아무 말 없이 범석이 무릎으로 익현의 복부를 강타한다. 헉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는 익현, 급소를 맞았는지 제대로 숨
을 쉬지 못한다.
범석
이 새끼가 분위기 맞춰줬더니... 검사 어깨에 손을 대??!!
쓰러져있는 익현의 멱살을 잡아채는 범석.
어이... 최익현... 너 지금 뭔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

양인데... 난 니가 깡팬지 아닌지 관심 없어... 내가 깡패라
면 그냥 깡패야...
멱살을 푸는 범석,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다.
표정관리 잘해... 괜히 술 맛 떨어지게 표내지 말고... 나 오
랜만에 가지는 술자리야...
쾅~ 범석이 문을 닫고 화장실을 나간다. 그제야 괜찮아진 듯 자리에서 일어
나는 익현, 퉤 바닥에 침을 뱉는다.

119. 실내. 익현의 집 / 거실. 밤

세 개의 향 끝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아들, 주한에게 술을 한 잔 받아 향 위
로 술잔을 세 바퀴 돌리는 익현. 제사상 주위에는 가족들 10여명이 익현을
빙 둘러싸고 있다. 빛바랜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술을 올려놓는 익현.

120. 실외. 시내거리. 밤

전자제품 대리점 앞, 지나가는 시민들 20여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통 유리창
앞에 서서 대형 TV에서 중계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
언을 지켜보고 있다.
노태우(V.O)
... 이에 본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
하여 국가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을 선포합니다...

자막 '1990년 10월 13일, 부산'

121.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부장검사실. 밤

조 검사와 부장검사를 비롯한 강력부 검사들이 테이블에 앉아 TV뉴스를 보
고 있다.
부장검사
(혼잣말하듯) 물 불 안 가리고 다 잡아넣어라... 이 얘기구
만... 일하긴 편하겠네... (검사들에게) 느그들 고생 좀 하
겠다... 열심히 해... 좋은 기회니깐...
결연한 표정의 범석.

122. 실내. 익현의 집 / 거실. 밤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TV뉴스를 보고 있는 익현과 가족들.
여동생1
아이고 잘 됐다 마... 진짜 요새는 하도 깡패가 많아가 밤에
돌아 댕기기가 무섭다니깐...
제부1
저번에 삼청교육대 맹키로 마 길에서 술 먹고 오줌 싸는
놈들까지 잡아 가는 건 아니겠제... 또 통금 생기면 술도 못
묵고 골치 아픈데...
제부2
(짜증내며) 이 새끼들은 뭐만 좀 있다 싶으면 다 잡아 넣
을라 카네... 어휴 개새끼들...
익현의 상황을 아는 김 서방을 제외한 가족들이 왁자지껄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굳은 얼굴로 뉴스를 보는 익현,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때, 따르릉~ 전화벨소리가
울리자 급히 수화기를 드는 익현.
익현
... 여보세요?

123. 실내외. 슈퍼 앞 / 익현의 집 교차. 밤

슈퍼 앞,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판호.
판호
행님... 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우째 돌아가고 있는 겁
니까?
익현(V.O)
아 좀 있어봐라 자슥아... 나도 생각 좀 하자...
판호
아니 행님... 지금 빨리 수를 써야지... 한가하게 생각하고
그랄 상황이 아닙니다... 인자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라는
얘기도 있어예...

124. 실내. 익현의 집 / 주방. 밤

익현
(작은 목소리로) 마... 이럴 때 일수록 더 침착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판호(V.O)
아이 행님... 그기 지금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 되요? 검사 바지끄덩이라도 잡고 늘어지야 될 거 아
닙니까...
익현
야이 새끼야... 그라면 뭐 우짜자고? 검찰청에 불이라도 지
를까??!!
판호(V.O)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최 사장님... 이번 일은 최 사장님
이 먼저 하자고 해서 이래 된 겁니데이... 저 달리가면 최
사장님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으
로 보이요?? 예??!!
익현
(버럭) 야이 미친 씨발놈아... 니 지금 내한테 협박하나??
어??!!

익현이 고함을 지르며 전화를 끊자 놀라 쳐다보는 익현의 가족들.

125.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강당. 낮

50여명의 강력부 팀원들과 파견경찰들이 아무 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범
석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범석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대통령의 대 범죄와의 전쟁 선언
과 때를 같이 해... 부산 지방 검찰청은 금일 00시부터 현
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34개파 550여명의 조직
폭력배에 관한 무기한 소탕령을 일제 발효하였습니다...
거기 나누어준 개정된 경찰 직무 집행법에 따라 현재 부산
조직 폭력 조직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조직원들은 모두 영
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하며... 만약 체포에 불응할시 즉각
발포해도 좋습니다...
'발포'라는 말에 놀라는 팀원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결의를 다진다.

126. 실내외. 조직폭력배 검거 몽타주. 낮

비트 있고 장엄한 음악 흐르며 몽타주 시퀀스가 시작된다.
- 검찰청 앞
50여명의 강력부 팀원들과 파견경찰들이 검찰청에서 나와 작전용 차량에 탑
승한다. 팀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틈을 타 공중전화 박스로 이동하는 쥐새끼
들,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 호텔 객실
대형 모토로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형배, 전화를 끊더니 급히 상의를 걸치고 조직원 한 명과 객실을 나간다.
- 관광호텔 앞
몇 대의 검찰청 차량이 호텔 앞에 멈춰 선다.
우르르 차에서 내려 호텔로 뛰어 들어가는 팀원들.
- 관광호텔 로비

기세등등하게 로비 들어서는 검찰청 팀원들, 일부는 카운터 앞으로 달려가 인터폰으로 소식을 알리려하는 직원들의 제지하고 일부는 비상계단으로 뛰어간다.
- 호텔 객실
객실로 들어오는 검찰청 팀원들, 하지만 형배는 온데간데없다. 막 자리를 뜬 듯 아직 재떨이에 담뱃불도 꺼지지 않은 상황, 안타까워하는 검찰청 팀원들.
- 관광호텔 파칭코 업소
형배 조직원 5명을 검거하는 팀원들, 일부는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와 서류철, 영수증 등을 박스에 담기 시작한다. 하던 게임을 멈추고 뭔 일인가 싶어 지켜보는 손님들.
- 보스 나이트클럽 앞
수십 명의 검경 수사관들이 보스 나이트클럽을 급습하여 창우를 비롯한 20여명의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반항하는 조직원들 위쪽으로 공포탄 한 발을 발사하는 팀원1.
- 조직원 숙소 앞
속옷만 입은 10명의 조직원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다. 좁은 봉고차에 강제로 구겨 넣어지는 조직원들, 쾅~ 봉고차 문이 닫히며 몽타주 시퀀스 마무리 된다.

127. 실외. 슈퍼 앞. 낮

초등학생들의 하교로 인해 어수선한 학교 앞 슈퍼, 판호가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판호
어... 어... 그래... 아가리 금마는 우째 됐노?? 다행이네...
알았다... 내 또 전화할게...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수화기를 내려놓는 판호,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주위를 둘러본다. 뺑~ 판호를 둘러싸고 있는 범석과 검찰청 팀원들.
범석
... 연행해...

범석의 지시가 떨어지자 판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팀원1.
팀원1
김판호, 닌 이제 죽었다 새끼야...

128. 실외. 부산 지방 검찰청 / 앞. 낮

검찰청 차량이 멈추자 취재진이 몰려든다. 팀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차에서 내리는 판호, 팡팡~ 여기저기서 플래시 터져대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카메라를 피한다.

129. 실내. 익현의 집 / 거실. 밤

TV 뉴스 화면, 폭력조직 두목 김판호씨 검거 소식이 나오고 있다.
쇼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는 익현, 표정이 어둡다.
익현
지영아... 니 접때 내가 미국 가는 거 알아보라는 건 다 알
아봤나?

지영
예... 알아 봤어예...
익현
언제 나갈 수 있겠노?
지영
딴 건 다 괜찮은데... 일단 집이 나가야 되니깐...
익현
그 집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깐... 일단 니는 아들 데꼬 먼저
좀 나가 있어라... 상황이 좀 급하네...
리모콘으로 TV를 끄고 주한의 방으로 들어가는 익현.

130. 실내. 익현의 집 / 주한의 방. 밤

자고 있는 아들, 주한을 바라보는 익현, 깊은 한 숨을 내쉰다.
그때 딩동~ 울리는 벨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리는 익현.

131. 실외. 익현의 집 / 앞. 밤

익현이 수갑이 채워진 채 팀원1,2,3에게 끌려 나온다.
그런 익현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가족들.
걱정하지 마라는 듯 가족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는 익현.

132.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강력부 취조실. 밤

팀원1에게 이끌려 취조실로 들어오는 익현, 테이블에는 범석과 판호가 마주
앉아 있다.
범석
(무표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 앉아...
익현이 판호와 마주보고 앉자 의자를 가져와 그들 사이에 앉는 범석.
서로 잘 알지? 인사해...
눈치만 볼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익현과 판호.
(피식 웃으며) 최 사장... 그간 당신 이야기는 여기 이 친구
한테 아주 재밌게 잘 들었어... 여기저기 갈아타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시켰드만... 무슨 얘긴지 알지??
익현
... 뭔 얘기 신지??
퍽~ 익현의 머리를 서류철로 내려치는 범석.
범석
이 새끼가 점잖게 대해줬더니 바로 양아치 근성 나오네...
(담배 한 대를 물며) 아가리?? 너 별명이 아가리라며... 맞
어??
피식 웃는 팀원1,2.
(팀원1에게) 김 형사, 단 둘이 좀 있게 자리 좀 비켜줘...
판호를 데리고 취조실을 나가는 팀원1.

어이 깡패... 아 깡패는 아니구나... 너 같은 놈들을 반달이
라고 한다메... 건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
고... 넌 도대체 뭐냐??
익현
(잠시정적) 뭐긴 뭡니까?? ... 그냥 사람이죠...
범석
(버럭)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갑작스런 범석의 고함소리에 기가 눌린 익현.
야... 저번에 내가 분명히 사람대접 못 한다고 경고했지??
너 내가 왜 계속 지방만 뺑뺑이 도는 줄 알어?? 화를 못 참

아서 그래... 화를... 내 유일한 단점이야... 나 지금 많이 참
고 있다...
익현
... 죄송합니다...
범석
(숨을 가다듬으며) 머리 좋은 놈이니깐... 지금 시국이 어
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거야... 당신이 아무리 사방팔방에
돈 칠을 해도... 이제는 내가 깡패 두목이라고 찍으면 그 길
로 즉시 그냥 깡패 두목 되는 거야... 범단 수괴로 15년 살
래?? 청부폭력으로 3년 살래??
익현
... ???
범석
니가 제일 잘 알 거 아냐... 최형배... 김판호 패거리들이 지
금까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증언해... 그럼 내가 책임
지고 3년만 살다 나오게 해줄게... 좋지??
의아한 표정으로 범석을 쳐다보는 익현.
(대답이 없자) 왜?? 싫어?? 그냥 15년 살래??
익현
....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예... 결례가 안 된다면... (잠시

정적) 검사님이나 저한테 좀 더 유익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범석
(잠시정적) ... 얘기해봐...

133. 실내. 호텔 뷔페. 밤

익현과 김 서방의 가족들이 뷔페 코너에서 음식을 담고 있다.
* * * * *
테이블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익현의 가족들.
익현
최주한이... 니 임마 미국 가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아
빠가 뭐라 하데?
주한
English is Power...
익현
(주한을 쓰다듬으며) 그래, 임마... 앞으로는 영어를 잘해
야 1등이 되는 기다... (생선을 덜어주며) 생선 마이 무
라... 생선을 마이 무야 머리가 좋아진다...
그때, 익현과 김 서방 옆으로 다가오는 형배의 조직원3명.
조직원7
최 사장님... 저희 큰 행님이 좀 보자십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한 숨을 내쉬는 익현, 김 서방도 겁먹은 듯 침을 꿀꺽 삼킨다.
익현
지금 가족들하고 밥 묵고 있으니깐 좀만 있다 보자케라...
아무 대꾸 없이 익현의 수저를 뺏는 조직원7.
조직원7
좋은 말 할 때 빨리 따라 오이소...

조직원들이 익현을 일으켜 세우자 뜯어 말리는 김 서방, 서로 힘 싸움을 한
다. 우당탕~ 김 서방과 조직원들의 몸싸움으로 난장판이 되는 테이블, 익현
의 가족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한다.

익현
알았다, 알았다... 나가자... 나가가 얘기하자...
조직원7
어이 김 상무... 니도 나온나...
익현과 김 서방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는 조직원들.

134. 실내. 호텔 / 복도 계단. 밤

조직원7,8,9가 익현과 김 서방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조직원8.9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는 슥~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시미를 꺼내는 조직원7.
조직원7
요서 작업하자...
순간 조직원 8,9가 김 서방을 넘어트리자 반항하는 김 서방의 발목을 붙잡는 조직원7, 사시미로 김 서방의 아킬레스건을 사정없이 끊어버린다. 으악~ 괴성을 지르며 나뒹구는 김 서방, 익현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른다.

135. 실내외. 시외도로. 밤

검은색 소나타가 시외도로를 달리고 있다. 조직원8,9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익현, 긴장되는 듯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136. 실외. 목욕탕 / 앞. 밤

시골 동네 목욕탕 앞에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도착한다.
차에서 내려 조직원들과 함께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익현.

137. 실내. 목욕탕 / 탈의실. 밤

영업이 끝난 듯 불이 꺼져 어두컴컴한 실내, 형배가 TV를 보면서 발톱을 깎고 있다. 조직원들과 함께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익현.

형배
이래저래 바쁘신 분이니깐... 거두절미하고 짧게 얘기하겠
습니다... 막아 주이소...
익현
... 뭐를??
형배
(웃으며) 당신이 검사랑 짝짜꿍해가 내 잡아넣으라고 한 거
다 알고 있다... 검사랑 술 마시감에... 분위기 좋다드만...
익현
뭔 소리고... 나도 어제 검찰에서 조사 받고 나왔다... (주절
주절)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검사라는 새끼가 무슨 깡
패도 아이고...
순간 짝~ 익현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기는 형배, 흥분한 듯 익현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다. 익현의 머리를 탕 속에 집어넣는 형배.
형배
대가리 검은 짐승들은 좆 빤다 해도 믿지 말라드만... 니가
꼭 그 꼴이네... 맞나 아이가??
켁켁~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익현.
개새끼가 빨아물낀 다 빨아묵고... 와 오늘 마 니도 김 상무
처럼 함 만들어주까??!! (버럭) 어??!!!!!
익현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형배.
익현
(거칠게 호흡하며) 형배야 그게 아이다... 니도 알겠지만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다... 내가 무슨 수로 막노???

다시 익현의 머리를 탕 속으로 집어넣었다 빼는 형배.
(울먹이며) 내가 니를 와 잡아넣어라 했겠노??!! 내 좀 살
리도 자슥아... 나도 진짜 죽겠다... 죽고 싶다 진짜...
익현이 울먹이며 하소연하자 잡고 있던 머리를 풀어주는 형배.

형배야... 진짜 아이다... 만에 하나 내가 사주 한 거면 판호
는 와 잡히갔겠노??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우리 같이 살자... 어??!! 우리 둘은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형배.
형배
(피식 웃으며) 아 씨발... 내 또 속는다...
* * * * *
소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고 있는 익현과 형배.
익현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니도 안다이가??
조직폭력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검사가 조폭 두목이라고 찍
으면 그냥 끝이라니깐... 내가 무슨 짝짝꿍을 했단 말이고...
형배
... 그 말 확실합니까??
익현
그래, 자슥아... 물론 나도 검사 안심 시킬라고 지편인 척
해준 건 맞다... 일단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거 아이가...
형배
... 우째 하실 생각 입니까??
익현
미국으로 뜰라고 준비 중이다... 집도 내놨고... 니도 일단은
고베로 좀 가있으라... 소나기는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게 장
땡이다... 수배 중이라가 좀 힘들낀데... 내가 준비해볼게...
형배
... 만에 하나 장난치시면... 그땐 진짜 대부님 아들은 호로
자슥 되는 겁니다... (잠시정적) ... 준비 함 해보이소... 연
락은 제가 할 테니깐...

138. 실외. 호텔 / 앞. 낮

멀리 바다가 내다보이는 낡은 호텔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선다.

139. 실내. 호텔 / 객실. 낮

객실 출입문 렌즈로 범석의 모습이 보인다. 철컥~ 문이 열리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범석,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익현과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간다.
* * * * *
준비해온 서류봉투를 범석에게 건네는 익현.
익현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빠칭코 배당 받는 거랑 어떤 유흥
업소에서 한 달에 얼마를 상납 받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따낸 계약들... 청부폭행에... 살인교사까지... 제가 알고 있
는 건 싹 다 적었습니다...
범석
... 고생했어...
서류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범석.
익현
검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저희 둘 말

고는 누구도 알아서 안 됩니다... 아무래도 검찰 쪽에 형배
가 한 명 박아 놨을...
범석
(말을 자르며) 알았어... 일절 만해...
양복 상의에서 뭔가를 꺼내는 범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일본행 배편이랑 가라여권이야... 연락 오면 바로 얘기해...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여권이랑 배편을 챙기는 익현.
익현
검사님... 그 새끼 그거 최소한 30년은 썩게 해주셔야 됩니
다... 만약에 증거가 부족하면 제가 얼마든지...

범석
알았어, 새끼야... 내가 화끈하게 넣어줄게... 마무리 잘하자...
140. 실내. 익현의 집 / 안방 / 거실. 밤
불이 꺼져 어두운 실내, 창밖에서 흘러들어온 희미한 불빛만이 방안을 비춘
다. 침대 위에서 지영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익현, 악몽을 꾸는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인다. 순간, 철컹~ 하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뜨는 익현, 몸을 부르르 떨며 지영을 깨운다.
익현
(잠이 덜 깨) 지영아... 지영아... 니 뭔 소리 못 들었나?
지영
(잠결에) 예??
익현
아니... 방금 뭔 소리 못 들었나?
지영
(귀찮은 듯) 무슨 소리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 장 한 구석에 숨겨 놓은 38구경 권총을 꺼내는 익
현,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 나간다.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방문 하나 하나
를 열어보는 익현, 표정이 점점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때~ 갑자기 거실 불이
켜지자 순간적으로 눈을 감으며 아~ 고함을 지르는 익현.
지영(V.O)
주한이 아부지... 뭐합니까?
고개를 돌리는 익현, 이제야 지영이 거실로 나와 불을 킨 상황임을 알게 된다.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지 않는 듯 이 방 저 방을 뛰어 다
니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익현,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
아 몸을 부르르 떤다.
141. 실내. 익현의 집 / 거실 / 안방 교차. 낮
익현의 집이 출동한 검찰청 팀원들로 부산스럽다. 전화기 옆에는 검은색의
도청전화기가 2대 연결돼 있고 베란다엔 밖을 내려다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거실 소파에 검찰청 팀원1,2와 나란히 앉아 있는 익현, 얼굴
이 말이 아니다.

- 안방
안방 한쪽 구석에 박스가 쌓여 있다. 옷가지, 귀중품등을 박스에 넣고 있는
지영, 이사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방으로 들어와 지영에게 다가가는 익현.
익현
... 짐 얼마나 쌌노??
지영
(한 숨 쉬며) 다 쌌으예... 당신 일이나 잘 마무리 하이소...

뒤돌아 안방을 나가려하는 익현, 한쪽에 쌓여있는 각 종 서류봉투 및 사진들
이 들어있는 비닐을 발견한다. 뭔가 싶어 사진을 꺼내보는 익현, 보면 형배
와 자신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다. 사진을 보고는 만감이 교차하
는 익현, 그때 따르릉~ 적막을 가르는 전화벨소리가 울린다.
- 거실
따르릉~ 전화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 가운데 팀원1이 익현에게 전화를 받으
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나 둘 셋 하며 동시에 전화를 받는 익현과 팀원1.
익현
... 여보세요...
형배(V.O)
대부님, 접니다...
익현
어, 그래... 형배야...
익현에게 손가락으로 오케이 신호를 보내는 팀원1.
형배(V.O)
어떻게 준비는 다 됐습니까??
익현
그래... 다 준비했다...
형배(V.O)
지금 집 앞으로 차 한대 보낼 테니깐... 그거 타고 일로 오

이소... 만나서 얘기 합시다...
익현에게 시간을 더 끌라는 신호를 주는 팀원1.
익현
그래, 알았다... 근데...
뚝~ 전화가 끊기자 수화기를 내려놓고 팀원1을 쳐다보는 익현.
우짭니까?? 내보고 오라는데...
팀원1
아 우짜지??
익현
와예??
팀원1
지금 차가 잠깐 검찰청에 드갔다 온다고 갔는데...
익현
(버럭) 아 무슨 일을 그래 합니까??!!! 아니 증인보호를 이
따구로...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어 팀원1에게 건네는 익현.
그라면 제 차라도 타고 쫓아 오이소... 무전은 돼지요??

142. 실외. 익현의 집 / 앞. 낮

대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익현이 자동차 운전수의 시점으로 보인다.
익현의 앞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운전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운전수
... 타이소...
익현이 차에 올라타자 부웅~ 출발하는 검은색 소나타.

143. 미행 시퀀스

- 국도

국도를 달리는 검은색 소나타, 뒤쫓는 검찰청 차량.
- 차량 안
힐끔 백미러로 뒤를 쳐다보는 익현, 검찰청 팀원이 미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고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쉰다.

144. 실외. 산길. 낮

검은색 소나타와 검찰청 팀원들이 탄 차량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산길을 오르고 있다.

145. 실외. 백숙 집 / 앞. 낮

검은색 소나타가 백숙 집 앞으로 도착한다.
차에서 내리는 익현, 옛 생각이 나는 듯 슥 주위를 한 번 둘러본다.
순간, 검찰청 차량이 백숙 집을 지나쳐 산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모자를 푹 눌러쓴 형배가 백숙 집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불안함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와 숨을 쉬기 힘들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익현.
형배
... 준비했다는 거 함 보입시다...
덜덜 손을 떨며 여권과 배편을 형배에게 건네는 익현.
익현
어, 그래... 요 있다...
익현에게 여권과 배편을 받고는 확인하는 형배.
형배
(주머니에 넣으며) 저랑 같이 내려가입시다...
다시 검은색 소나타에 올라타는 익현, 형배는 슥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는 조심스레 차량에 올라탄다.

146. 실내외. 산길 / 차 안. 낮

검은색 소나타가 좁은 산길을 내려가고 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익현과 형배.
형배
대부님... 대부님은 여태까지 제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현
... 그래 생각하지...
형배
(비웃으며) 그래 생각하신다는 양반이 처신을 그따구로 합니까? 제가 분명히 이쪽 세계에서 발을 때라고 얘기 했을 텐데요... 아닙니까??
익현
(한 숨 쉬며) 그래... 그랬지... 그라면 나도 함 물어보자... 나도 지금까지 니를 위해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니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나?
형배
... 도움이 됐습니다...
익현
근데 니는 우째 내한테 그랄 수가 있노...
형배
(노려보며) 대부님이 먼저 판호새끼한테 붙었다 아입니까...
익현
(언성을 높이며) 야 그건 내가 분명히 그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내가 또라이가?? 우리 집안사람을 담그라고 지시하게...
형배
(화를 내며) 지시했다는 얘기가 아이라... 내 편을 안 들고 판호한테 찾아가가 내가 좆도 아닌 놈처럼 보이게 했다 이

얘깁니다... 아닙니까?
익현
(한 숨을 쉰다) ...

형배
아무튼 인자 대부님이랑 저랑 관계는 이걸로 끝난 겁니
다... 뭐 알아서 잘 사시겠지만 처신 잘해가 뭔 일 안 생기
도록 단디하이소...
그때, 봉고차 한대가 맞은편에서 올라오자 끼이익~ 멈추는 검은색 소나타.
좁은 길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형배
... 니가 좀만 빼주라...
형배의 지시를 받고는 차량을 후진시키는 운전수, 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뒤
에서 내려온 익현의 차 - 검찰청 팀원들이 탄 - 와 맞닥뜨리게 된다.
상황을 눈치 채고는 긴장하는 익현.
익현
(애써 웃으며) 완전히 차가 막혔네... 우야노??
순간,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형배, 고개를 돌려 익현을 쳐다본다.
애써 딴청을 피우다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리는 익현, 형배와 눈
이 마주친다. 빵빵~ 클락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
다보는 익현과 형배, 일촉즉발에 상황이다.
익현
으아아아악!!!!!!!!!!!
순간, 괴성을 지름과 동시에 양복 안주머니에서 38구경을 꺼내어 형배의 얼
굴을 가격하는 익현, 틈을 주지 않고 형배의 목을 양손으로 있는 힘껏 조른
다. 켁켁~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양손으로 익현의 얼굴을 밀
어내는 형배, 둘의 몸싸움으로 인해 38구경이 뒷좌석 한쪽으로 떨어진다. 앞
뒤로 후진하며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운전수, 하지만 샌드위치처럼 당해 꼼짝
달싹 못한다. 형배가 쉽게 제압당하지 않자 미간을 찡그린 채 더욱 세게 목
을 조르는 익현, 이제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이 된 듯 좁은 차안을 휘저으며
힘 싸움을 벌인다.
익현
(덜덜 떨며) 씨발놈아... 디지라... 디지라, 개새끼야...
- 차량 밖
달그락 달그락 차량 문을 열기 위해 바깥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검찰청

팀원들, 일부는 차량 위에 올라타 앞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거세게 내려친다.
- 차량 안
붉게 충혈 된 눈으로 익현을 노려보는 형배,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 두발을
강하게 차올린다. 와장창~ 차량 옆 창문이 깨지고 차량 내부가 난장판이 되
자 순간 전세를 역전하며 힘이 빠진 익현의 위로 올라타는 형배, 상의에서
사시미를 꺼내 푹~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데, 익현이 손으로 막아서 왼쪽 다
리에 사시미가 꼽힌다.
익현
(사시미를 움켜쥐며) 으아아아악!!!!
익현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허벅지에 박힌 사시미를 놓지 않자 강하게 익현
의 목을 조르는 형배, 켁켁~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는 익
현. 그때, 검찰청 팀원1,2가 문을 뜯고 차량 안으로 들어와 힘으로 형배를 뜯
어낸다.
- 차량 밖
거칠게 반항하는 형배를 밖으로 끌고 나오는 팀원1.

형배
(거칠게 반항하며) 나라... 나라,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
야... 빨리 나온나... 씨발 놈아... 니는 인자 진짜 죽었다...
(비명을 지르며) 아아아아아아!!!!!!
잡혀가는 것보다 익현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욱 분한 듯 핏발선 눈으로 고래
고래 고함을 지르는 형배, 매서운 눈빛으로 익현을 노려본다. 털컥~ 형배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는 범석.
범석
최형배... 당신을 조직폭력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연행해...
팀원들이 형배를 차량에 탑승시키자 익현에게 다가가는 범석, 혼잣말을 중얼
거리는 익현을 말없이 바라본다.
익현
(몸을 부르르 떨며) 씨발새끼가... 죽을라고... 개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이깄다... 내 이깄으...
차량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38구경 권총을 발견하고는 집어 드는 범석. 탄창
을 확인해보지만 총알이 없음을 알고는 의아해하며 익현을 바라본다.

147. 실내. 부산 지방 검찰청 / 앞. 밤

검찰청 차량이 도착하자 대규모의 취재진이 몰려든다. 검찰청 팀원들에게 둘
러싸인 채 차에서 내리는 형배, 팡팡~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져댄다. 판호
와는 달리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채 당당하게 기자들을 지나치는 형배, 시종
일관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 청사로 걸어 들어간다. 급히 자리를 이동해 정면
에서 형배의 모습을 찍으려 하는 기자1, 팡~ 형배와 범석이 함께 잡히는 사
진을 찍는다.
재판관(V.O)
사건번호 72다13258, 폭력단체조직 금지에 관한 특별법 위
반 및 살인교사, 폭행, 금품갈취로 본 법정에서 심의합니다...

148. 법정 몽타주

장엄한 음악 흐르며 몽타주 시퀀스 시작된다.
- 법원
범석이 신문을 하고 있다.
범석
곧 증명되겠지만... 피고인 최형배는 부산에서 가장 흉악한
폭력조직의 두목입니다...
머리가 덥수룩한 형배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서 있다.
형배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범석.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형배.
범석
... 증인을 신청합니다...
- 법원
증인석에 앉아 있는 익현에게 질문하는 범석.
익현은 손가락으로 형배를 가리키며 증언하기 시작한다.

그런 익현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형배, 크게 쉼 호흡을 한다.
애써 형배의 시선을 피하는 익현.
- 법원 복도
포박을 당한 채 교도관과 함께 법원 복도를 걷는 형배의 얼굴 위로 판결문이
들린다.

재판관(V.O)
... 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바 본 재판관은 피고 최형배
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 법원
피고인석에 익현이 앉아 있다.
최후 진술을 하는 범석.
범석
...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합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받아들이는 익현.

149. 실외. 갈비집 앞 강남대로. 낮

대형 갈비집 앞, 오고가는 차들로 혼잡한 강남대로.
자막 '20년 후, 2010년 2월, 서울'

150. 실내. 갈비집. 낮

점심식사 손님들로 인해 분주한 대형 갈비 집, 여기저기 유명 연예인들의 사
인과 사진이 장식되어있다.
- 주방
희끗희끗한 머리에 얼굴엔 주름이 가득한 익현이 단속 나온 구청 직원과 대
화를 나누고 있다.
익현
(중후한 목소리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1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고 회장님... 무슨 말씀을...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매 번 너무 감사합니다...
웃으며 구청1의 어깨를 두드리는 익현.
익현
그래... 식사들 하고 가요...
* * * * *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갈비집 입구로 향하는 익현, 가족들과 함께 식당으
로 들어오는 중년남자1과 마주친다.
중남1
(꾸벅 인사하며) 아이고 회장님... 가게에 계셨네요...
익현
어... 그래 밥무러 왔나??
중남1
예... 회장님... (웃으며) 아 근데... 회장님... 댁에 좋은 일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허허 웃는 익현.
익현
그래... 그래... 고맙다... 맛있게 묵고가라... 아들 인물 좋네...
익현이 중남1과 인사를 나누고 가게를 나가자 배웅을 나가는 매니저들.

151. 실내. 과천정부청사 / 법무부 강당. 낮

예복을 입은 80여명의 신임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펑~펑~ 여기저기서 터져 대는 카메라 플래시.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앞좌석
에 앉아 있는 범석, 그 역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152. 실외. 과천정부청사 / 법무부 앞. 낮

법무부 건물 앞에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신임검사들.

범석이 핸드폰 통화를 하며 정문에서 걸어 나와 그들 사이를 지나간다.
범석
예... 언제 이 국장이랑 식사나 같이 하시죠... 허허허... 그
래요? 어깨에 힘들어 갈만 하죠... 숨만 쉬고 있어도 진급
하는 자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하며 자신의 차에 올라 타려하는 범석, 그때 '조 검사님~'하고 등 뒤
에서 자신을 부르자 고개를 돌린다. 익현을 보고도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범석, 다리를 절룩거리며 익현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제 서야 누군지 기억이 나는 모양이다.
익현
(범석에게 다가가며) 검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범석
(이제야 기억난 듯) 아 최 사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익현
(웃으며) 아 예... 별게 아이라... 오늘 저희 아들이 검사로
임용되가...
범석
(약간 놀라며) 아 그래요? (악수를 건네며) 축하드립니다...
익현
(악수를 받으며) ... 감사합니다...
익현이 손짓으로 이리로 오라는 신호를 보내자 가족 - 지영, 며느리, 여동생
1,2, 김 서방 등등 - 들과 함께 사진을 찍다 다가오는 주한.
인사드리라... 예전부터 아부지랑 잘 아는 조범석 검사님이
시다...
주한
(꾸벅 인사하며) 안녕하십니까? 40기 최주한입니다...
범석
(주한에게 악수를 권하며) 아, 예... 반가워요, 축하드립니다...
아무 말 없이 웃는 익현.

암튼 제가 일이 있어서... 담에 기회가 되면 또 뵙죠... 그
럼... 건강하세요...
익현과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 차에 올라타는 범석, 시동을 걸다 말고 쓴 웃
음을 한 번 짓더니 질경질경 껌을 씹기 시작한다.

153. 실외. 익현의 집 / 정원. 낮

전원주택 정원, 20여명의 익현의 식구들이 출장 요리사를 불러놓고 식사를
하고 있다. 한쪽 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익현과 주한.
주한
그냥... 뭐...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제가 아부지 아니었
으면 우째 됐겠습니까?? 마누라도 있고... 아까지 있는데...
익현
(웃으며) 됐다... 우째됐든 됐음 된기다...
주한
고마워요, 아부지... 오늘 이상하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렸을 때 부산 살았을 때 생각도 나고...
익현
열심히 해라... 이제 시작이다... 항상 겸손하고...
와락 아버지 익현을 껴안는 주한.
주한
아부지... 저 정말... 진짜... 잘 될게요... 고맙습니다...
* * * * *

테이블을 돌며 가족들에게 일일이 와인을 따라주고 있는 익현.
익현
(와인 잔을 들며) 자... 잔 들고...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
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고... 아직 설전이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남자
들은 돈 많이 벌고... 여자들은 돈 많이 쓰고... 가족들끼리
서로 서로 돕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삽시다... 자 건배...

건배를 하고는 와인을 들이키는 익현과 가족들, 그때, 울고 있는 한 살배기
아기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오는 주한의 처.
익현
아가야... 젖 다 먹있나?
며느리
예, 아버님...
익현
아
는 내 주고... 니는 빨리 밥 무라...
울고 있는 손자를 며느리에게 건네받는 익현.
익현
아 와 이라노?? (머리에 손을 대며) 어디 아프나?
익현에게 안기자 더욱 서럽게 울어대는 손자.
며느리
... 오늘 통 안자던데... 졸린 가 봐요...
주한
아버지만 보면 꼭 우네... (웃으며) 아버지가 싫은갑다...
익현
야가 와 나를 싫어하노? (다시 손자를 달래며) 누가 그랬
어? 응? 누가 우리 손자한테 그랬어? 누가 그랬어?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는 손자를 달래보려고 애쓰는 익현. 지영과 유미는 가
안절부절 못하는 익현의 모습이 재밌는지 낄낄대며 웃는다. 손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찌하지 못하고 지영에게 아이를 안겨주는 익현. 아이울음소리
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주름살 가득한 익현의 얼굴 위로 들리며...
끝.